



18년 만에 바뀐 국민연금 과제는? 04



Economy

코스피	↑	2643.13 (+6.03)	코스닥	↓	719.41 (-5.74)
금리 (미국 3년)	↓	2.597 (-0.001)	환율 (원-달러)	↑	1467.00 (+8.10) (21일)

### ‘사즉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글로벌 경영 본격화

# 레이 쥘과 회동... 전장 협업 기대감

(샤오미 회장)

2년만에 中발전포럼 참석 샤오미 전기차 공장 찾아 전장사업 협력 방안 모색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년 만에 글로벌 기업 경영자들이 모이는 중국발전포럼에 참석하고 레이 쥘 샤오미 회장을 만났다. 이는 거대 중국에서 현지 사업 전략을 점검하고 경쟁사인 샤오미를 고객사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최근 전기차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한 샤오미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장 사업’을 꼽은 삼성전자의 주력 고객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 회장이 최근 ‘사즉생(死即生·죽기를 각오하면 산다)’의 각오로 비상 경영 의지를 다진 만큼, 위기 상



산불진화 나선 헬기

23일 오후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헬기 등으로 오전 내내 밤이 묶였던 산림청 소속 산불진화헬기가 산불 진화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 /뉴시스

황을 타개할 쇠신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부터 2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발전포럼(CDF)에 참석한다. CDF는 중국 정부 고위 당국자와 글로벌 기업 경영자들이 만나는 행사로 올해는 ‘전방위적인 발전 모멘텀 촉발과 안정적인 세계경제 성장 공동 촉진’을 주제로 열린다. 이 회장이 이 포럼을 찾은 것은 지난 2023년 이후 2년만이다. 한국 측에서는

이 회장을 비롯해 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기업 CEO로는 팀쿡(애플)을 비롯해 크리스티아누 아몬(윌컴), 호크 탄(브로드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케네스 그리핀(시타델 인베스트먼트), 스티브 슈워츠먼(블랙스톤), 빌 토마스(KPMG) 등 금융계에서도 자리한다.

이 회장이 CDF 참석을 추진한 건 최근 임원들에게 ‘사즉생’의 각오를 주문한 만큼, 전방위

적인 쇠신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지난 17일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고 경영진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질책하며 “당장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삼성전자는 미·중 갈등 상황과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 등으로 인해 복합적 위기에 직면했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고위급 발전 포럼에 참석 차 중국을 방문해 샤오미 레이쥘 최고경영자(CEO)와 만남을 가졌다. /웨이보 캡처

### 社告



### 메트로경제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 힘든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25일(화)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지속과 내수(소비+투자) 부진으로 국내의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잃어가는 난세(亂世·힘든 세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100세시대 현실화로 확실한 재테크 전략이 절실합니다.

메트로신문은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국내외 경제와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고령화시대 재테크, 증여·상속세 절감, 부동산 투자 전략 등을 모색합니다.

- ◆ 행사명 : 2025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 주 제 :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 -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 ◆ 일 시 : 3월 25일(화) 오후 2시~5시1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30분~2시)
-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 삼전·하이닉스·현대차 등 NXT, 종목 350개로 확대

3단계 매매체결대상 종목 시총 상위주들 대거 포함

코스닥시장에서도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LB,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시총 상위 1~5위 종목이 모두 포함됐다.

24일 출퇴근길부터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K-명품’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되는 종목이 110개에서 350개로 확대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200개, 코스닥 상장사 150개다.

이번 3단계 매매체결대상 종목 확대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대거 포함됐다.

코스피 상장사 중 기아, 대한항공, 두산, 메리츠금융지주, 셀트리온, 아모레퍼시픽, 유한양행, 카카오, 크래프톤,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 T, LG 등도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 가능하다.

지난 4일 거래를 시작한 넥스트레이드는 정규 장 외에도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오후 8시)을 운영한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투자가 가능해진 것이다. 거래량이 많은 시총 상위주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넥스트레이드 거래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 종목이 10개였던 지난 4~14일 155억원 수준이었던 넥스트레이드 일평균 거래대금은, 종목이 110개로 늘어난 이후인 17~20일 1323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다만 최근프리마켓에서 적은 유동성을 이용해 1주 내외의 주문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거래시 주의가 필요하다.

/허정운 기자 zelkova@

### m-커버스토리

## 정쟁에 지친 민심... ‘새로운 정치’ 요구 확산

### 분열의 정치, 언제까지

탄핵정국 속 사회갈등 극심 민생 위한 실용적 정치 기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사회가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갈등과 정쟁으로 얼룩진 정치와 차별하고 민생·경제에 새바람을 몰고 올 수 있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윤석열 정부는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0.73%포인트 차로 제

치며 탄생했으나, 취임 3년차 윤 대통령의 중간 평가로 치러진 22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대거 원내로 진입하면서 여소야대 정국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채해병 순직 사건 및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의혹, 윤 대통령의 대과 한 단 ‘875원’ 발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 김건희 여사의 각종 스캔들 등으로 수도 권과 충청 민심을 잃었고 집권

여당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TK(대구·경북), 강원 등지에서만 선전하며 ‘도로 영남당’이라는 수모를 겪었다.

역대 최다 의석수를 기록한 야당은 윤석열 정부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야당은 국회에서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등을 ‘줄탄핵’했으며, 윤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명태균 특검 등을 발의하며 대통령 주위를 압박했다. 그 와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

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정지예행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과상공세에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배로 이뤄진 군 내 사조직을 이용해 비밀리에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12월3일 비상계엄과포고령을 선포하며 계엄 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에게 보낸 메시지와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부정선거론과 반국가세력론을 펴며 민심에 등을 졌다. <3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 메트로 한줄뉴스



- ▲尹 “정부·지자체, 가용 자산 총동원해 산불 진화하길”
- ▲한덕수 탄핵 선고 D-1... 총리실, 직무복귀 가능성 대비 /사진 뉴시스

- ▲권성동 “장외집회·정략적 행위 중단하고 재난 극복 집중해야”
- ▲원희룡 “미복귀 의대생 원칙대로... 즉시 학칙 적용하고 편입 공표해야”

- ▲한동훈 “‘청년 독박’ 국민연금법 거부권 행사 후 재논의해야”
- ▲박찬대 “내일부터 광화문 천막당사... 선고 촉구 결의안 처리도”

# 정부, 에너지 등 美 협력 강화... 관세 시기·수준 조율 가능성

안덕근 장관, 美 상무장관 등 회동 동맹 관계 기반 아웃리치 집중 전개 '민감국가 지정' 확답 얻지 못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동맹국인 우리나라에도 추가적인 관세 부과가 적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달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대미 아웃리치를 집중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 관세 부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다.

다만, 양국이 동맹국 관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등 협력 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협력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이 유연하게 이뤄질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일~21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잇따라 만나 우리 업계 우려를 전달했으나, 미측의 '민감국가' 지정이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명확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

안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과 지난달 27일 첫 회담에 이어 3주만인 지난 21일 만나 내달 2일 발표될 것으로 예고된 상호관세와 관련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산업부는 미국 정부의 잇따른 주요 현안 및 조치 발표에 따라 확대되는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고위급에서 연이어 방미 중"이라며 "지금과 같이 미국 정부와 지속적인 신뢰를 쌓아가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앞서 20일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갖고 미국의 '민감국가'에 한국이 포함된 문제를 논의하고 한미 양국이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우리측 우려를 전달했을 뿐 민감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다"며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관세 부과가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관급 회담에서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확답을 얻지 못하면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신 향후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상호관세 부과 시기나 수준 등 조율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안 장관은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LNG(액화천연가스), 전력망, 수소, SMR(소형모듈원전)을 포함한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정부 당국간 '에너지 정책대화',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정례화해 개최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 사업 및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주정부 주요 인사들도 트럼프 연방 정부의 관세 부과나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축소나 폐지 등이 유연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양국 협력을 위한 협상용이므로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앤디 빅스 애리조나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17일(미국 현지시간) 윤진식 한국 무역협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무역적자 해소, 세수 확보, 중국 견제, 외교 관계 재정립 등의 복합적 이슈를 고려한 전략적 포석"이라며 "한국은 일본, 대만과 더불어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한미 FTA로 사실상 무관세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이 다음 달 예정된 상호 관세 정책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에이브러햄 하마데 의원은 "업계의 인센티브 축소 우려를 체감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구 내 대규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행정부와 활발히 협의 중"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도 외국자본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반도체법 개정이 유연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 1면 '사측생 이재용 회장...'서 계속

## 韓 고용률 69.5% '사상 최고'... OECD 평균에는 못 미쳐

지난해 69.5% 집계... 정상케도 올라 20·40대 노동인구 취업은 지속 감소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의 모습. /뉴시스

지난해 국내 15~64세 인구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 정상화 속 노동시장 회복에 따른 일종의 기저효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상 최고임에도, 우리나라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고용률 평균을 여전히 밑돌았다.

23일 OECD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의 2024년도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용률은 69.5%로 집계됐다. 이는 OECD가 고용률 부문에서 한국 관련 통계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내 고용률은 지난 2019년에 66.8%였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65.9%까지 미끄러졌다. 이후 2021년

66.5%, 2022년 68.5%, 2023년 69.2% 등으로 회복 추이를 보여 왔다. 2024년에도 전년 대비 0.3%포인트(p) 상승해 산술적으로는 일단 정상 케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계청이 월별로 발표해 온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 초년생' 20대와

'경제 허리' 40대 등의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인구 감소가 취업자 수 증감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전체 고용률의 경우엔 올랐다"라는 정부 측 분석도 나오는 반면, 주요국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임을 국제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은 37개국(총 38개 OECD 회원국 중 영국 미집계) 가운데 26위에 그쳤다. 아울러 작년에도 역시 OECD 평균(70.2%)에 미치지 못했다.

일본이 79.4%로 4위에 오른 것과 대비된다. 일본보다 위에 자리한 나라는 아이슬란드(85.3%), 네덜란드(82.3%), 스위스(80.4%) 등 3개국뿐이다. 우리는 동유럽의 체코(75.4%), 헝가리(75.1%), 슬로베니아(73.2%), 폴란드(72.5%) 보다 낮다. 에스토니아(75.7%), 리투아니아(73.6%), 라트비아(71.2%) 등도 OECD

평균을 상회한다.

이 밖에 독일 77.4%, 덴마크 77.2%, 호주 77.1%, 스웨덴 76.7%, 캐나다 74.7%, 아일랜드 74.5%, 오스트리아 74.1%, 포르투갈 72.8%, 미국 71.9% 등이다.

연령대 범위를 25~54세의 핵심노동인구로 좁혀서 보면 한국은 지난해 31위로 더 처진다. 우리는 78.4%, OECD 평균은 80.1%였다. 일본은 무려 87.3%를 나타냈다. 한창 일할 나이의 고용률은 하위권이란 얘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청년층(29세이하)에서 '그냥 쉬었음' 인구가 5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8% 늘었다. 또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역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흐름 속에 29세이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23만 명 넘게 감소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현장중심 글로벌 경영 차세대 전장사업 속도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2012년 이후 30조원 넘게 투자한 낸드플래시 공장을 운영 중이며, 최근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도 제조시설을 짓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삼성전자는 현지 당국자들과 소통을 확대해 돌과구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지난 22일 경쟁사인 샤오미의 레이 회장도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중국 매체 신광과학기술 등은 이 회장과 크리스티아노 아몬 웰컴 회장이 전남 베이징에 있는 샤오미 자동차 공장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레이 쉐안미 CEO와 린빈 부회장 등이 이들을 맞이했다.

이번 만남은 삼성전자의 전장(차량용 전자·전기장비) 사업 확대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샤오미가 전기차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의 고성능 메모리반도체,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고객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62억 달러(약 111조원)에 달했던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오는 2028년 1152억 달러(약 162조원) 규모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대형 고사양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올해 69억달러(약 10조원)에서 연평균 9% 성장해 2031년에는 129억달러(약 18조 7000억원)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이 회장과 레이 회장의 만남을 계기로 삼성전자와 샤오미의 미래 사업 협력이 강화된다면 삼성전자가 차세대 전장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기업 수익성 악화 지속... 부실확률 역대 최고

5년새 건설업 부실확률 3.3%→6.1%

최근 6년간 자산보다 부채비율이 높은 부실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3일 발표한 '기업부실예측분석을 통한 2024년 부실기업 진단'에 따르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외감기업(금융업 제외) 3만7510곳 중 4466곳(11.9%)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것으로 추정됐다.

부실기업 수뿐 아니라 전체 외감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두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19년에는 2508곳(7.9%), 2020년 3077곳(9.2%), 2021년 4012곳(11.2%), 2022년 3856곳(10.8%), 2023년 4350곳(11.6%)이었다.

한경협은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업황 부진,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부실기업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진

단했다.

개별 기업이 부실 상태로 전환될 확률은 부실확률도 2019년 5.7%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4년 8.2%로 최고치를 찍었다.

업종별 부실확률은 부동산·임대업이 24.1%로 가장 높았고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15.7%),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4.2%),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14.0%)이 뒤를 이었다. 제조업이 2.8%로 가장 낮았고 도소매업(4.1%),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4.3%),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업(5.7%) 등 순이었다.

【양성운 기자 ysw@】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전남 담양군 담양중앙공원 이재종 담양군수 재선거 후보의 지원 유세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식에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8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하홀에서 열린 '시대를 바꾸자, 개헌'을 주제로 한 청년 토크쇼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17일 규제철폐 33호 수해지 오류동 화랑주택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눈에 띄는 주자 없는 군웅할거... 李 독주 속 비명계 가능성도

〈興〉

〈野〉

## 정치권, 조기대선 대비

興, 김문수 등 차기대권 후보 거론  
尹 대통령 지지층 여전... 간접 행보

野, 이재명 중심 경제분야 보폭 확장  
선거법 2심 등 사법리스크 해소 관건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혁신을 이끌 새 정치의 기수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에 대비해 조기 대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여권은 치고 나가는 주자 없이 여러 후보가 본격적인 경쟁을 준비하는 모습이고, 야권은 이재명 독주 양상이 선명한 가운데, 대안으로 떠오르는 인물도 마땅하게 찾기 쉽지 않은 모양새다.

### ◆ 興, 김문수·한동훈·오세훈·홍준표 등 군웅할거

여권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특색 있는 여러 후보들이 난립하는 '군웅할거' 속 '군계일학'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경험 많은 후보들이 여럿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중도 보수'란 프레임으로 짜면서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이라고 압박하는 상황과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여권 주자들은 직접적으로 조기 대선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지만, 세력 규합이나 정책에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한민국 4.0' 설계를 주장하며 24일 저서를 출간 예정이며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정치활동

의 소회가 담긴 저서를 출간하고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에 나서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는 이재명 대표는 정계를 은퇴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출마 연령 조건을 맞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또 한 번의 '이준석 신드롬'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 ◆ 野, 이재명 독주... 비명계 연합 후보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선 낙선에 쓴잔을 마시고 '와신상담' 중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생각보다 빨리 '전화위복'의 기회를 빨리 잡을 수도 있다. 22대 총선과 당 대표 연임 과정에서 당을 친명(친이재명) 체제로 개편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수감 이후 야당의 경쟁자도 딱히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0.73% 포인트 차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금투세 폐지, 상속세·근로소득세 완화 등 주식투자자와 수도권 중산층이 민감한 이슈를 이끄는 '중도보수' 이미지 메이킹에 나서고 있다. 또한 최태원 SK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기업인들과 만남을 지속하면서 경제침체 속 '경제'에 지속적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번주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등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정치적 거물로 떠오른 이후 그의 표리표처럼 따라온 '사법리스크'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여당의 원색적 공세를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명(비이재명)계도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에 힘을 보태며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복권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김경수 전 전남지사는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을 14일째 이어간 지난 22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대선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에서 이 대표와 대적할 만한 연합 후보를 민주당 경선에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 ◆ 조기대선 치러질 경우 '정권교체' 51%- '정권유지' 39%

지금 당장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야당이 조금 더 좋은 여론 흐름을 유지하고 있긴 하다. 다만, 이 대표의 공직 선거법 2심 결과에 따른 여당의 공세 강화와, 야당의 분열이 계속되면 야권 우세 흐름도 흔들릴 수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9%, '현 정권 교체에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1%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탄핵심판 선고 임박... 국난 극복 힘 모아야

》 1면 '정쟁에 지친 민심'서 계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을 국정에서 제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이는 여야의 반발을 모두 불러왔다. 두 차례 시도 끝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통과됐다. 이후 수사당국의 경쟁적 수사, 윤 대통령의 관저 버티기와 체포 시도, 종교계를 위시한 극우 세력의 등장, 극우 청년들의 서울서부지방방법원 폭동,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논란 등 각

종 가치를 치는 이슈마다 정치권은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 시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그 후에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세력을 규합하고 정책을 준비하는 '새 정치'에 쏠려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24일 예정돼 있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는 이번주, 대한민국 사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새 정치'의 분수령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자본시장의 숲을 성장시키는  
**한국증권금융**

투자자 한 분 한 분이, 증권사 한 곳 한 곳이 모두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이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한 자본시장의 숲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자본시장의 성장파트너,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금특위 구성의 건'을 통과시켰다.

/뉴스시스

# ‘골든타임’ 지켰지만… 특위·수익률로 세대 갈등 풀어야

## 미래세대 부담 논란 여전

소득대체율 43%로 상향 조정  
국가의 지급 책임 법률에 ‘명시’  
연금소진 시점 2064년으로 연장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국가의 지급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골든타임’을 간신히 지켜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기성세대를 위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 혜택이 젊은 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은 27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이 193명, 반대 40명, 기권이 44명으로 여·야 합의 처리됐다. 지난 2007년 단행된 2차 국민연금 개혁 이후 18년 만이다.

### ◆ “국민연금 ‘골든타임’ 지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혁안 처리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간신히 지켜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을 예고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도 압박했다는 관측에서다.

법안 내용은 현행 9% 수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현행 40%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43%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국가의 지급 책임을 명시했으며, 군 복무·출산에 대한 크레딧 제도(가입 기간 인정)의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했다.

이번 개혁안에 따라 연금보험료는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오는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p)씩 오른다. 기존에는 월 소득 300만원 기준 월 13만 5000원(근로자 부담 50%)을 보험료로 내야 했다.

## 청년세대에 과도한 부담전가 지적 반대·기권 88표… 여야 이탈 다수 한동훈 “청년세대 외면한 개정안” 연금특위 구성해 추가 논의 예정

2033년에는 월 19만 5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임의 가입자라면, 부담액은 매달 27만원에서 39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혁으로 연기금 소진 시기는 2056년에서 2064년까지 약 8년 늦춰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

금 수익률을 1%p 개선할 경우, 연기금 소진 시기는 7년 더 늦춰진 2071년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국민연금의 재정적 위기를 한 차례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법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기성 세대의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 ◆ “미래 세대 부담”… 논란 지속

지난 20일 개정안 의결 당시 반대와 기권표는 도합 88표에 달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석 수는 총 278석으로, 양당에서만 최소 66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이탈표는 대부분 30~40대의 젊은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여·야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선 이번 연금개혁을 무효화하고,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라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국회를 통과한

13%·43% 개혁안은 여·야가 땀질하기로 답합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 정부도, 여야도 각자 단일안을 제시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세대 간 형평성 확보 과제 부상 청년층 신뢰회복 위한 대책 필요 기금 수익률 제고 위한 구조개편

여·야는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 만큼, 향후 출범하게 될 연금특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연금특위 구성에 대한 법안은 국민연금 개정안과 같은 날 239명 중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연금 개정안 통과 직후 “오늘 통과시키는 법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게 된다”라며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치열하고도 지혜로운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주문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 고양국제꽃박람회

2025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꽃, 상상 그리고 향기

2025.  
4.25(금) ~ 5.11(일)  
일산호수공원 Ilsan Lake Park

고양국제꽃박람회  
Goyang International Flower Foundation

AI 이름에 K를 붙였다는건  
우리를 위해 나아가겠다는 것  
KT가 AI 시대를 이끌어갈 한국적인 AI  
K intelligence를 시작합니다  
미래를 향해 멈추지 않는 우리처럼

K라는 이름이 가장 빛나게

**K intelligence**



# 정치권 뒤흔들 폭풍의 한 주... '한덕수·이재명 선고' 잇따라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與野 모두 기각 가능성 높게 예상

오는 26일, 李 항소심 선고 예정  
어떤 결과에도 상고 가능성 높아

오는 28일 尹 탄핵심판 시 '요동'  
현재 평의 짧아져... "이건 정리 예상"

대한민국 정치를 흔들 폭풍같은 한 주가 다가왔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24일 선고되고, 이틀 뒤인 26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8일 선고될 경우, 일주일만에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2인자, 원내 1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세 사람의 선고는 법리적으로는 별개 사안이지만,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큰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24일이라고 공지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 소추됐다. 또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및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도 탄핵 사유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의 경우 기각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당은 한목소리로 기각을 확신하고, 총리실은 현재 선고를 예단하지 않고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다.

야당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인용을 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했다. 사진은 한 총리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청문회에서 의원질문에 답하는 모습.

대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기각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한 총리가 기각된다 해도,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사전 정치작업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현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하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인용된다면 한 총리는 총리직에서 파면되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또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미리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총리의 탄핵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방조했다는 혐의가 걸려있어서다. 이에 판결문에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역시 예측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당초 정치권에서 예상했던 일정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 선고보다 이 대표의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의원직 상실뿐 아니라, 조기대선이 실시되면 대선 출마도 어렵게 된다.

이 대표가 1심과 비슷한 형량으로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킬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법원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피엔스'의 저자이자 이스라엘의 세계적 석학인 유발 하라리 전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인공지능(AI)을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대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어느 정도 떨어진 다. 당내 대세론을 확정지으며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된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찰이나 이 대표 측에서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 1심보다 형량이 낮으면 검찰이, 1심과 비슷하거나 높으면 이 대표 측이 대법원으로 항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오는 2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까지 나올 경우 정국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현재가 평의를 계속하는 가운데, 재판관들 사이 조율이 잘 이뤄지지 않아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평의 중 고성이가 들렸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또 정치권에서는 '어떤 재판관이 마음을 바꿨다' '재판관 두 명이 대립 중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소위 '지라시(정보지)'가 난무했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된다. 그리고 파면 직후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여야는 선거 모드로 돌입하게 된다. 이런 경우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윤 대통령과 함께 갈지, 결별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다.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여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폭격'라며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 역시 대정부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선고가 이번주 내로 이뤄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현재는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재 재판관들이 늦게까지 평의를 계속했는데, 지난주 중반부터 평의가 짧아졌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한 방송에서 "(이건이) 정리가 다 됐다"는 얘기를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野, 금주 '崔 대행 탄핵' 처리 가능성 낮아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등 예정에  
본회의 일정 추가로 잡기 어려워  
한 총리 파면 시 탄핵안 올릴 전망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발의했지만, 이번주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본회의의 일정이 27일 하루 뿐인 데다 오는 24일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어, 결과를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 21일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했다. 야권이 언급한 최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12·3 내란 관련 행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불이행 등이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다시 한번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이른 시일 내로 탄핵안을 통과 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주 확정된 본회의의 일정은 27일 하루 뿐이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24일에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26일에 예정돼 있다. 거기다 일각에서는 오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경남 산청 산불진화 현장을 방문, 산청양수전력호보관에 마련된 산불현장지휘본부에서 산불진화 상황을 보고 받고 인명과 시설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대응을 당부하고 있다.

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택에 따라 본회의를 추가로 열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권한쟁의심

판 결과가 나왔음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중대한 위법'이라고 보고 탄핵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탄핵을 빠르게 강행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현재 상황에서 탄핵이 실익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다만 한 총리가 파면될 경우,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 5개 중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불이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한 총리 경우에는 국회서 선출된 후보자 3명 모두 임명 거부) ▲12·3 내란 사태 가담 등이 있는데, 이는 최 권한대행 탄핵 사유와 겹치기 때문이다.

만일 탄핵심판을 통해 한 총리가 탄핵에 가담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최 권한대행의 탄핵심판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또 27일 본회의 이후 72시간 내 본회의가 잡히지 않는다고 해 바로 탄핵안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탄핵안 보고 후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회 회부해 심사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법사위로 탄핵안이 회부될 경우 민주당 내 추진 동력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 기자

## “연금개혁으로 청년세대 부담·책임 커져”

3040세대 與野 의원 8명  
“청년세대 참여 확실 보장해야”

3040세대 여야의원 8명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안 본회의 처리로 청년 세대의 부담이 증가한 점을 언급하면서 추후 논의엔 청년들을 참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지난 3월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표결을 한 의원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여기 모인 의원들이 이번 모수조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자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누가 더 받고, 누가 더 내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해야 하고, 더 받을 사람이 아니라 더 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이번 연금개혁안을 두고 "가

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 청년세대와 청소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일동은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참여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국회의 평균 연령은 57세다. 세대적으로 매우 불균형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수급연령이거나 불과 수년 내에 납부의무에서 벗어나 수급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세대가 받을 돈은 인상하면서 보험료의 인상 부담은 젊은 세대에게 떠넘겼다는 뼈아픈 비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므로,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서부터 30대와 40대의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연금특위의 인원도 13명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2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목소리도 담아내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고 투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IN KOREA

Made in Korea.

MADE IN KOREA

ZARD  
EN

MADE IN KOREA

Unit:g/oz

Display:LCD

MADE IN KORI

DEINKOREA

Made in Korea.  
혁신의 상징이 된다.

대한민국의 멈추지 않는  
위대한 기업, **그 옆에**



MADE IN KOREA

MADE IN KOREA

MADE IN KO

MADE IN KOREA

MADE IN KOREA

MADE IN

6JJ07701

# 보험사 M&A 냉각... 'MG손해보험' 불발로 가입자 발동동

우리금융, 생보 인수 빨간불  
평가등급 하락에 발목 잡혀

메리츠 'MG손보' 인수 포기  
파산 가능성에 가입자 불안  
청산펀 5000만원 초과자 손실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하고 우리금융지주의 ABL·동양생명 인수에도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보험업계 인수·합병(M&A)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MG손해보험의 경우 파산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가입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3개월 만이다.

앞서 MG손해보험은 지난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매각에 나선 바 있다. 적격자를 찾지 못하던 중 메리츠화재가 인수에 나



최근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의 MG손해보험 본사. /뉴시스

서면서 지난해 12월 MG손해보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메리츠화재는 매각조건 협의를 위한 실사를 추진했으나 그 과정에서 전 직원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해보험지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메리츠화재는 직원 10% 고용 유지와 250억원 규모의 위로금을 제안했으나 결국 노조 반대로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메리츠화재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매각과 관련해 보험 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의 MG손보 인수 포기로 MG손보의 청산 우려가 제기되면서 보험 소비자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보험사가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다수의 보

험 계약자들은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보험 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초과하는 자산에 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MG손보와 계약한 124만명으로 5000만원 초과 계약자는 1만1470만명(1756억원)에 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이 되겠지만 가입 금액이 크거나 저축성 보험을 가입한 경우 5000만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되면 가입자들에게겐 최선일 수 있지만 청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의 ABL·동양생명 인수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은행 의존도가 90%를 넘는 우리금융은 종합금융 그룹 도약을 위해 보험사 인수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에 ABL·동양생명의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본격 인수 작업에

돌입했다.

그렇지만 금융감독원이 최근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하면서 인수에 제동이 걸렸다.

금감원은 "직전 경영실태평가에 비해 세부 평가항목 중 상향 조정된 항목보다 하향 조정된 항목이 다수 발생했다"며 "여타 금융지주와 비교한 경우에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으려면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다만 3등급 이하라도 금융위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수를 승인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지난 2004년에도 우리금융이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받았으나 LG투자증권의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로 승인한 바 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에 대해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 추가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분양 가뭄... 2028년 입주아파트 씨 마른다

서울 지난해 1순위 청약 0건 기록  
올 수도권 입주 4만가구 감소 전망

올해 들어 분양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간 일반분양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서울 지역의 분양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분양부터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오는 2028년엔 아파트 공급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순위 청약은 한 건도 없었다. 직전주에도 청약은 단 3건으로 618세대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 특히 민간 일반분양 물량이 부진하다. 1월 분양 물량은 7440세대이며, 이 가운데 조합원분이 2371세대다. 이달 분양 물량이 1, 2월보다는 늘었지만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데다 서

울의 경우 2년 여 만에 분양이 단 한 건도 없다.

다음주 예정되어 있는 일반분양 청약도 1000세대 안팎에 그친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시행사들이 느끼는 현재의 분양 환경은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올해의 분양 부진은 2028년의 부동산 시장 내 공급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드물게 나오는 있는 분양조차도 청약 미달이 발생했다. 3월 셋째주 3건 가운데 우선 분양 전환 후 남은 15세대를 공급하는 '성남관교 산온마을9단지 대방노블랜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부천 JY 포에시아'와 '안동 용상 하늘채 리버스카이' 모두 청약이 미달됐다.

김 연구원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여기거나 향

후 오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미달이 발생한다"며 "땅값과 공사비는 상승했고, 이자 부담은 쌓인 만큼 경공매로 땅을 싸게 얻어오지 않는 한 원가 부담으로 인해 분양가를 낮출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청약 결과 부진은 분양 감소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분양 물량 감소는 시장의 공급 감소로 이어진다. 초과 수요는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입주 물량은 이미 감소세다. 올해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11만 4154가구로 전년 대비 4만 가구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2026년은 상황이 더 악화돼 입주 예정 물량이 6만 9642가구에 불과하다. 지난 2014년 7만 5563가구 이후 최저치다.

/안상미 기자 smahn1@

## 포항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1단지 분양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  
약 77만㎡ 공원·편의시설 다양

경북 포항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가 지난 21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단지는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 들어선다. 포항시 내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은 남구 중심 생활권에 위치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또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인 데다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까지 누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짓는다. 지난해 분양한 2단지에 이어 선보이는 1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7개 동, 전용면적 84~178㎡, 총 999세대로 구성된다.

1단지의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84㎡A 432세대 ▲84㎡B 55세대 ▲84㎡C 126세대 ▲127㎡ 378세대 ▲139㎡P 4세대 ▲178㎡P 4세대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는 공원시설(약 77만㎡)과 비공원시설(약 17만㎡)로 구성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된다. 상생공원은 도로로 분절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 투시도.

된 4개의 공간을 연결하고 공간별 특화 계획을 통해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전망이다.

공원 안에는 갤러리프라자(예정), 아트프라자(예정), 워터프라자(예정) 등 다양한 조경시설이 계획돼 있으며, 수려한 포스코 야간경관을 즐길 수 있는 해맞이 전망대(예정)가 들어선다. 또한 실내수영장(예정), 다목적체육관(예정), 문화센터(예정) 등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예정)가 조성될 계획이다.

아울러 포항성모병원, 이마트(포항 이동점), 롯데마트(포항점), 이동종합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전지원 기자 jiw13@

## 사망보험금에 납입보험료 100% 보장 '상속종신보험' 인기

ABL생명, 고령화 시대 니즈 반영  
기납입·총납입P플러스형 구성

ABL생명은 사망 시 사망보험금에 납입한 보험료까지 돌려주는 '(무)ABL THE해주는 상속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지난 2월 12일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사망보험금 지급 방식에 따라 1형(기납입P플러스형)과 2형(총납입P플러스형)으로 구성된다. 1형은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와 더불어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2형은 보험가입금액의 100%와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 총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간편심사형에 한해 ▲최근 3개월 이



내에 질병확진단·의심조건,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조건 ▲최근 2년 이내 입원 또는 수술 이력 무관 ▲5년 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지만으로 고령자와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설계자금' 기능을 신청하면 보험료

납입완료 후 본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부를 감액해 감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생활설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입나이는 일반심사형 1형(기납입P플러스형) 기준, 남자만 15세에서 최대 72세까지다.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다.

김순재 ABL생명 상품실장은 "이 상품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과 함께 돌려드려 상속세 재원 마련은 물론 개별적인 재정 계획에 맞춰 고령화 시대에 유연하게 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실속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 국민카드-한국타이어 'TBX 카드' 출시

타이어 교체비용 최대 24개월 할부

KB국민카드는 한국타이어와 제휴를 통해 TBX대리점 구매 혜택을 탑재한 'KB국민 TBX 카드'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라이트할부' 기능을 탑재했다. 타이어 교체비용을 최대 24개월 할부로 결제할 수 있다. 30만원 이상을 12·18·24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남은 잔액은 원금균등방식으로 상환한다.

전월실적을 달성하고 라이트할부 잔액이 있는 경우 매달 청구대금을 최대 1만2000원 차감한다. 라이트할부 잔액이 없는 경우 최대 5000원을 환급하는 보상 서비스도 준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KB국민 TBX 카드는 트럭, 버스 등 상용차 고객을 대상으로 라이트할부 서비스를 제공해 타이어 교체 시 목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조원태, 보잉사 등 협력 강화... 韓-美 항공산업 교두보 역할

〈한진그룹 회장〉

현장경영 통해 통합 항공사 체비  
차세대 항공기 구매 등 48조 투입  
정부 대미협상 과정 적극 지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최근 미국 보잉사·GE에어로스페이스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민간 통상외교관 역할에 적극 나섰다. 통합 대한항공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항공기 도입에 초대형 투자를 진행, 우리 기업에 대한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 정부와의 관계 개선에도 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23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원태 회장은 21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서 켈리 오트버그 보잉 최고 경영자, 러셀 스톱스 GE에어로스페이스 상용기 엔진 및 서비스 사업부 사장 겸 최고 경영자 등과 만나 대한항공-보잉-GE에어로스페이스 간 협력 강화 서명식을 가졌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에 맞춰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대한항공, 보잉, GE 3사 협력 강화를 위한 서명식'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에서 세 번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오른쪽에서 네 번째), 하워드 러트니 미국 상무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 켈리 오트버그 보잉 최고 경영자(왼쪽에서 네 번째), 러셀 스톱스 GE에어로스페이스 상용기 엔진 및 서비스 사업부 사장 겸 최고 경영자(왼쪽에서 첫 번째) 등 양국 정부 및 기업 대표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기단을 확대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차세대 최신행 항공기 도입에 적극 나섰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보잉사와 지난해 7월 영국 '판버러 국제 에어쇼'에서 맺은 양해각서(MOU) 이행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보잉 777-920대와 보잉 787-10 20대를 2033년까지 도입하고, 향후 비슷한 조건으로 항

공기 10대를 추가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논의했다.

또 GE사의 예비 엔진 8대(옵션 엔진 2대 별도) 구매와 보잉 777-9 항공기용 GE9X 엔진 관련 정비 서비스 계약도 조속히 마무리해 항공기 및 엔진에 대한 제작사 지원을 강화한다.

3사간 협력 규모는 항공기 구매 249

억달러, 예비 엔진 구매 및 엔진 정비 서비스 78억달러로 총 327억달러(약 47조 9700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단순히 기업 경쟁력 확대를 넘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리 기업의 부담도 낮추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미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기업들의 관세를 지적해왔다. 지난 3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가 4배 높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도와주는 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본격적인 관세 압박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이날 행사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니 미 상무장관이 자리했다는 점도 양국 정부간 우호적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조 회장이 국적 항공사 수장으로 정부와의 대미 협상 과정에서 민간합동 구도를 만드는데 적극적 역할을 펼쳤다는 평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신형기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항공기 공급분을 조기에 확보해 증장기 도입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석화업계, 임원 감축 등 구조조정 본격화

업황 악화에 대응책 마련 분주  
"세금 감면 등 정부 지원책 절실"

석유화학업계가 업황 악화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에 속속 나서고 있다. 임직원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 같은 구조조정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사업구조의 고부가가치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투자 여력이 부족한 만큼 세계 혜택 등 정부의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롯데케미칼의 지난해 말 직원은 4764명으로 집계됐으며 전년 동기 대비 194명 줄어들었다. 특히 임원 감소세는 두드러졌다. 미등기 임원은 78명으로 전년 대비 17명이 줄었다. 명시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 인원들이 채용 규모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의 지난해 말 직원 수는 1만 3857명으로 전년 대비 613명 줄어들었다. 석유화학 사업 부문 직원은 6161명으로 1년 만에 363명이 감소했다. LG화학 석유화학 부문은 지난해 첨단소재사업본부 생산기술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임직원 수는 SK E&S 합병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SK이노베이션의 전체 직원 수는 2148명으로 전년 대비 538명 증가했다. 다만 전기차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의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높은 부채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력 감소는 곧 급여 지출 축소로 이어져 기업들의 비용 절감 효과를 낳았다. 롯데케미칼은 인력 축소 등을 통해 약 8억원의 급여를 절감했고 LG화학은 2269억원의 인건비를 줄였다.

그럼에도 석화 업계의 체질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

하며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케미칼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매출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달성 시점은 2032년으로 단기간 내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4년 12월 산업경쟁력 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급과잉 NCC 설비 합리화 ▲글로벌 시장 경쟁력 보강 ▲고부가가치 창출로의 사업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대응이 자율적인 생산 조정 유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 현장의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세금 감면이나 전기세 완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기업들도 증장기 전략을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렉서스 디 올 뉴 LX 700h 차량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렉서스코리아

## 강력한 파워에 안정적 코너링... 주행성능

### 자동차 시승기

#### 렉서스 '디 올 뉴 LX 700h'

플타임 사륜구동... 제로백 6.5초

렉서스의 라인업 중 최고등급 'LX라인'이 국내에 출시됐다. 이번에 선보이는 4세대 디 올 뉴 LX 700h는 기존 대형 SUV와는 차원이 다른 성능과 주행 능력, 안정성, 특히 오프로드 기능의 특별함을 보여주고 있어 대형 SUV의 끝판왕으로 불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디 올 뉴 LX 700h는 전동화 실현을 위해 새로운 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됐다.

렉서스의 GA-F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된 LX 700h는 배기량 3.5리터 V6 트윈터보 기술된 엔진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조합됐다.

플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된 로드와 오프로드 등에서 안정적인 주행 감을 갖춘 점이 강점이다. 10단 자동변속기가 탑재됐고 최고출력은 457마력, 최대토크는 80.6kg.m의 강력한 파워를 지녔다.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은 6.5초다. 실제 고속도로 주행 시 제로백 체감은 강력한 파워 토크로 3~4초에 불과한 느낌이었다.

강력한 성능으로 길이 5095mm에 2.8톤이 넘는 차체에도 빠른 움직임과 함

께 고속 코너링에도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방지턱이나 불규칙 노면에서도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고 일상 주행에서 엔진소음과 노면소음 등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복합 연비는 8.0km/L로 하이브리드 SUV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낮다. 실제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7km/L를 보여주면서 효율보다는 강한 힘을 자랑할 수 있는 럭셔리 대형 SUV다.

고속도로 터널에 진입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차들이 압력 변화와 반사 음원으로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이번 LX 700h의 경우 차음유리를 사용했고 기존 대비 더욱 두꺼운 유리를 사용, 타이어에도 신기술을 도입해 소음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 터널 진입 시 차량 내부에서는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실내 공간은 2850mm의 휠베이스(앞뒤 바퀴간 거리)로 동급 대비 여유로운 공간성을 갖췄다. 2열 시트 역시 일정 각도만큼 뒤로 젖힐 수 있어 안락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다.

2억원에 가까운 차량으로 가격대가 부담이 있지만 '돈 값'하는 차량인 것은 확실하다. 온로드 주행에서는 편안하면서 묵직한 힘, 오프로드 주행에서는 강인하면서 안전성까지 갖추면서 럭셔리 대형 SUV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이승용 기자

## 김동관 부회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사주 30억 매입

〈한화그룹〉

주식 매입 통해 책임경영 실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사진)이 최근 유상증자를 발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 매입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김동관 부회장이 자사주 30억원 규모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종가 기준으로 약 4900주다. 이와 함께 손재일 사업부문 대표와 안병철 전략부문 사장도 각각 9억원(약 1450주), 8억원(약 1350주)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했다. 이들은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결정이 유럽의 독자 재무장과 미국의 해양방산 및 조선해양산업 복원의 큰 흐름 속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식 매입을 통해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회사와 주주의 미래 가치를 제고한다는 방안이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이사회에서 약 3조 600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 방산 블록화'가 뚜렷해지는 가

운데 단시간 내 현지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시급해졌다는 입장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유상증자로 확보할 자금 중 1조 6000억원으로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미국, 사우디 등에서 생산거점 확보 및 합작법인(JV) 설립 등을 위한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한 추진장악(MCS) 스마트팩토리 설립에 9000억원, 미국의 해양방산 및 조선 산업기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조선소 확보에 8000억원, 무인기 엔진 및 체계 양산을 위해 3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중기부, 산하기관 인사 ‘잔걸음’ 곳곳서 낙하산·깜깜이 논란 확산

20명 가까이 접수한 공영흡소평 새 대표에 이모씨 유력설 거론 이씨, 19대 국회의원 지낸 인물

신임 창진원장, 비전문가 지적에 ‘관악구청장 재직시절 창업지원 노력’ 신보회장 인사 입단속 정황 빈축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점휴업했던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무리수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취임했거나 유력하게 거론되는 일부 인사에 대해선 ‘낙하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중기부 출신으로 이동이 당연시됐던 기관장 취임을 놓고는 ‘깜깜이’로 진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23일 중기부와 산하기관 등에 따르면 공영흡소평은 지난 14일까지 신임 대표이사 공모 서류를 받은 결과 20명 가까운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공영흡소평이 지난해 9월 이후 비어있던 대표 자리를 모집한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60년생이면서 한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한 인물’이 인구에 회자됐다. 급부상한 이모씨는 서류 접수를 마감한 현재도 신임 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이씨는 19대 총선에선 경기 성남분당갑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바 있다. 원내에선 새누리당 경기도당 수석 부위원장과 원내대변인을 맡았다. 2012년 당시 18대 대선에선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고용과 복지분야를 담당했고, 20대 대선때는 KDI에서 선·후배로 인연을 맺은 유승민 예비후보자를 도와 캠프에서 정책1본부장을 이끌기도 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공영흡소평은 현재 서류 제출자들을 대상으로 내부 검토를 통해 후보자들을 추리고 있다. 중소기업 및 농축수산물 관로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명분으로 탄생한 TV흡소평인 공영흡소평은 올해 7월 개국 10주년을 맞는다.

‘스타트업’으로도 불리는 창업기업 등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창업진흥원에는 서울 관악구청장 출신인 유종필 원장이 지난달 말 새로 취임했다. 기자 출신으로 민주당과 국민의 힘을 넘나들었던 유종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선 상임고문을 맡기도 했다.

유 원장은 비전문가라는 지적에 대해 일부 언론에 “관악구청장 재직시절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 뿐만 아니라 창업지원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고 전했다. 유 원장은 지난달 27일 가진 취임식에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인 창업을 대변하는 창업진흥원을 이끌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 기관으로의 재도약을 통해 정부의 창업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계 사정에 정통한 복수

의 관계자는 “기관의 내부 임직원들은 ‘낙하산’이라도 힘이 썩 인물이 오길 바라는게 인지상정이다. 단 전문분야와 무관한 인물이 내려와 임기내내 자기 정치만 하다 가는 것은 안된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 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에는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정책실장을 역임한 원영준 회장이 지난 19일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에 들어갔다. 원 회장의 이동은 이미 점쳐졌었다.

그런데 취임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지 말 것을 신보중앙회측에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 일부 기관장에 대해 ‘낙하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 식구 관련 인사를 놓고도 입단속을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기관이 중기부 담당과에 ‘이런 시국에 인사 관련 자료를 내는 것이 맞는가’라고 문의를 해왔다. 이에 중기부 실무자가 ‘신보 측에서 잘 판단하시라’라고 전했는데 이 말을 보도자료를 내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임 기관장 모집 접수가 끝난 한국벤처투자(KVIC) 사장에는 중기부에서 최근까지 중소기업정책실장을 역임한 이대희 전 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 형태는 아니지만 대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자리에서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인 변태섭 전 실장으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주 장관은 지난 2월 말 산하기관 인사 진행 여부를 묻는 출입기자들 질문에 “절차에 따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곽재선 회장, 혁신 DNA ‘진화 중’ 글로벌·내수 공략 성과 ‘뚜렷’

쌍용차 인수 후 실적 반등 지속 토레스 EVX 인기, 수출 물량 증가 英 판매 18% ↑... 10년내 최대 실적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주도하는 KG모빌리티(KGM)의 혁신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위상 확대와 판매 상승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며 청산 위기에 몰렸던 쌍용자동차가 2022년 KG그룹 가족사로 편입된 뒤 2년 연속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며 경영정상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쌍용자동차는 2016년 티볼리 흥행으로 흑자를 기록한 이후 분기별 적자를 기록했지만 곽재선 회장이 이끄는 KG그룹 가족사로 편입한 이후 눈에 띄는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KGM의 경영정상화는 완전히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통의 주력 사업군인 내수와 더불어 곽 회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병행하면서다.

최근 KGM이 발표한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 10만9424대 ▲매출 3조7825억원 ▲영업이익 123억원 ▲당기순이익 462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안정적 성장은 액티언 등 신모델 출시와 글로벌 시장 공략 확대를 통한 수출물량 증가와 함께 토레스 EVX 판매에 따른 CO<sub>2</sub> 페널티 환입과 환율 효과,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 원가절감 노력에 힘입은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KGM은 내수 시장에서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고객 경험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공간으로 ‘KGM 익스피리언스 센터 일산점’을 개소한 데 이어 강남 팝업 시승센터를 운영하며 고객과의 만남을 강화하고 있다. 또 고객 니즈를 반



곽재선 회장이 KGM 익스피리언스 센터 강남 개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영한 차량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올해 초 선보인 2025 렉스턴과 무쏘 스포츠&칸, 렉스턴 등은 고객 니즈를 적극 반영한 트림을 내놓았다.

해외는 유럽에서 중남미까지 글로벌 신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곽 회장은 취임 초부터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 ‘현장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현지 시장 조사를 위해 직접 찾아가 간담회를 여는가 하면,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직접 참여하고 대리점 판매 직원들과의 끊임 없는 소통을 주도하는 등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 재구축에 힘쓰고 있다.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나라별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기존 유럽 위주로 구성된 수출 부문을 아시아와 중남미까지 신시장을 개척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유럽 및 중남미에서 대리점 강화와 협업 확대를 강조한 그의 노력은 2014년 이후 최대 수출 실적이라는 기록도 달성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2만6890대를 판매하며 2023년 대비 18% 성장을 기록했다. KGM은 수출 비중이 지난해 57%에서 올해 68% 수준까지 확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中 전기차, 韓 시장 ‘프리미엄 전쟁’ 예고

지리자동차, ‘지커’ 7X로 본격 진출

중국 전기차 업체가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과거 가성비 제품을 전면에 내세웠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프리미엄으로 확대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지커(Zeekr)’가 지난달 28일 ‘지커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 코리아 주식회사’(지커코리아)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 시장에 공식 진출했다. 앞서 BYD가 선발대로 아톰3를 출시하며 발을 내딛은 가운데 중국 브랜드의 국내 시장 침투가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지커코리아는 법인 설립 목적을 ‘자동차 및 이와 관련된 제품들의 수입 사업’, ‘자동차 및 이와 관련된 제품들의 유통·판매·서비스 사업’, ‘자동차 배터리 및 관련 시스템과 소재의 개발·제조·가공·판매·임대·서비스업’ 등으로 밝혔다.

지커코리아대표이사는 차오위 지커

동아시아 총괄이며, 사내이사로는 김남호 전 폴스타코리아 프리세일즈 총괄이 이름을 올렸다. 지커는 한국법인 설립 등록을 마치고 시장 분석, 딜러사 선정 등을 진행 중이다.

BYD가 3000만원 초반대 저가 전기차 ‘아톰3’로 국내 시장 전체를 공략하고 있다면, 지커의 경우 프리미엄 시장을 정조준 하고 있다. 특히 지커는 올 하반기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신차 출시를 앞두고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리자동차는 지난 17일 지커 로고에 대한 국내 상표 등록도 마쳤다. 지커의 ‘7X’ 상표 출원을 했다는 점에서 초기 출시 모델은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7X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7X는 최고 출력 639마력의 주행 성능으로 1회 충전 시 543km(WLTP 기준) 주행할 수 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제로백)은 3.8초다.

/양성운 기자

## HD현대일렉트릭, 과전압 방지 배전변압기 첫 공개

미국 ‘디스트리뷰테크 2025’ 참가 친환경·고효율 배전기기 전면 배치

HD현대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HD현대일렉트릭이 미래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글로벌 배전기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오는 24일부터 나흘간 미국 텍사스주 달러스시 케이 베일리 허치슨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디스트리뷰테크 2025’에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34회째인 ‘디스트리뷰테크’는 전 세계 94개국에서 ABB, 지멘스, GE 등 700여개의 글로벌 에너지·전력 기업이 참가하는 북미 최대 규모의 송배전 및 에너지 분야 전시회다. 국내 전력기기 기업 가운데 이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은 HD현대일렉트릭이 처음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이번 전시회에서 배전변압기, 친환경 배전반, 중저압



HD현대일렉트릭 ‘디스트리뷰테크 2025’ 부스 조감도.

/HD현대일렉트릭

차단기 등 배전기기가 포함된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과전압방지기능이 적용된 배전변압기 실물 제품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 설비는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수인 환경에 최적화됐으며, 독자적인 보호 기술 설계를 통해 과도한 전압 상승으로 인한 고장을 방지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배전기기 시장에서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력을 널리 알리고, 신규 고객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올해 말 완공을 앞둔 청주 배전 신공장에서 생산될 최신 제품들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글로벌 배전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www.sjame.co.kr

농업의 성장동력! 농업의 미래!

# 2025 상주농업기계박람회

## 2025. 3. 25.(화) ~ 3. 28.(금)

태평성대경상감영공원 일원(경북 상주시)

### 전시분야

자율작업, 농업로봇, AI,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기계 전시  
일반 농기계·자재 전시(수도작, 밭농업, 축산, 수확 및 가공, 시설농업 등)

### 부대행사

학술심포지엄, 시설원예수출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밭농업기계 담당자  
현장 교육, 승마로봇체험, 경품응모 등

### 문의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수출전시팀 : 041-411-2135~7  
상주시 농업정책과: 054-537-7441~2

###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기계학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 상기 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  상주시 주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 게임 내용수정 신고 등 완화... '게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반영  
향후 게임 업데이트 가속화 전망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기준 완화  
폐업 신고기간, 7일 → 30일 연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한 가운데 주춤했던 게임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게임물 등급 분류의 민간 이양 범위가 확대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산업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게임업황에 대한 기대감 이미지.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했다. 특히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게임물 등급 분류를 중장기적으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완전히 이양하겠다"고 전했다.

그간 게임 내 수정을 하고 싶어도 복잡한 신고절차에 업데이트가 대부분 지연돼 해당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간단한 콘텐츠 수정사항을 사전 신고 24시간 내 처리할 수 있게 돼 향후 게임 업데이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역시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 제외된다.

아케이드 게임물(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역시 외관 변경을 제외한 수정사항에 대

해서는 내용수정을 신고해야 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기준도 완화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을 지정 심사 기준에서 삭제하고 '매출액' 기준을 '매출액 또는 자본금'으로 확대했다.

또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재지정심사가 있는 당해연도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게임사업자가 폐업할 시 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직권발소를 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게임사업자가 게임물 불법 개·변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제재 등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게임 사업자의 게임물 불법 개·변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나서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는 그간 게임에 대한 강한 규제 빗장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통과는 국내 유저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는 게임업계에도 편의성을 제공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챗GPT와 사적대화한 사용자 외로움 늘어”

소수 헤비 유저, AI 감성적 활용  
친구로 인식할 경우 부정적 영향  
외로움 늘지만 AI 의존도는 낮아

챗GPT와 사적인 대화를 나눈 사용자들은 외로움이 증가했지만, AI(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보 획득이나 생산성 향상 등 비개인적인 목적으로 챗GPT를 사용한 사람들은 외로움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AI 의존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았다.

오픈AI는 지난 21일(현지 시간) AI 챗봇이 인간 정서와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MIT 미디어랩과 공동 수행한 이번 조사는 AI와 인간의 감성적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대규모 연구다. 400만개 이상의 챗GPT 대화 분석, 4000명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대규모 플랫폼 데이터 분석'과 약 1000명의 참가자가 28일간 챗GPT를 사용하며 대화 주제가 정서

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무작위 통제 시험(RCT)' 등 2개의 병렬 연구가 진행됐다.

연구 결과 대다수 사용자는 챗GPT를 정보 검색이나 작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이나 정서적 지원을 목적으로 AI 챗봇을 쓰는 경우는 드물었다. 소수의 헤비 유저만이 챗GPT를 감성적으로 활용했으며, 이들은 "챗GPT를 친구로 여긴다"와 같은 문항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았다.

연구진은 "대인 관계에서 애착 성향이 강하거나 AI를 자신의 친구로 인식한 사람들은 챗봇 사용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컸다"며 "또 매일 장시간 AI 챗봇을 사용하는 것도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AI 챗봇과의 대화 주제는 사용자의 정서적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 챗GPT와 개인적인 경험이나 가치관, 인생 이야기 등을 나눈 사용자들은 외로움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AI 의존도는 낮게 나타났다.

반면, 챗GPT와 비개인적인 대화(일반적인 정보 제공, 개념 설명,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등)를 주로 한 그룹은 AI 챗봇 사용 전후 외로움에 변화가 없었지만, AI 의존도가 증가했다.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 그룹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기억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줘'와 같은 질문을, 비개인적인 대화를 한 참가자들은 '돈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줘' 등의 질문을 대화 프롬프트로 받았다.

특별한 주제 없이 자유롭게 AI와 대화한 그룹은 외로움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AI 챗봇을 감성적인 대화 상대로 여기기보다는 가벼운 소통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오픈AI는 "우리는 사용자에게 최대한 이익을 제공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AI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AI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

## SKB,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교실' 운영

구로문화재단·LOVE FNC와 '맞손'

SK브로드밴드가 구로문화재단, LOVE FNC(러브에프엔씨)와 지난 21일 서울시 구로구 구로아트밸리에서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SKB 방과후 교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LOVE FNC는 FNC 엔터테인먼트가 설립한 비영리 공익재단이다.

이번 협약으로 SK브로드밴드는 오는 5월 모집을 시작해 7월부터 구로구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K-팝 댄스와 기타, 건반, 드럼 등 악기 강습을 방과후 교실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와 이벤트를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타 지역 역사회 학생들이 더욱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준규 LOVE FNC 센터장, 김지훈 SK브로드밴드 경영전략실장, 정연보 구로문화재단 대표(왼쪽부터)가 지난 21일 서울시 구로구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SKB 방과후 교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LOVE FNC도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인 FNC의 문화예술 역량을 심분 활용해 이번 방과후 교실을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구로문화재단 또한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해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 KT-고려대 민연, '한국적 AI' 개발 속도

한국학 분야 고품질 데이터 확보

KT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민연)과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적 인공지능(AI) 개발 연구 협력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민연과의 협력을 통해 KT는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정서를 잘 이해하고 한국의 역사와 철학,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적 AI' 개발에 필요한 한국학 분야의 방대한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KT는 상반기 중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적 AI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등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어 사전데이터 ▲한국현대소설사전과 근대간행물사전 등의 백과사전데이터 ▲민족문화연구원 총서 등 민연의 방대한 한국학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정교한 한국적 AI 개발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KT와 민연은 한국적 AI 발전을 위한 연구 협력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AI가 특정 사고나 정서에 대한 편향성 없이 한국의 역사관이나 국가관을 정확하게 답할 수 있도록 AI 데이터 품질 향상, 한국적 AI 가치관 연구 등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고려대 부설 연구기관인 민족문화연구원은 한국학 분야 국내 대표 연구 기관으로 한국어 사전 편찬, 한국 문화와 역사 관련 출판물 간행을 비롯해 한국학 연구 과제를 활발히 수행해왔다. 특히 인문학과 정보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도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서현 기자

## KT, AI 마스터 브랜드 'K 인텔리전스' 선포

수원 KT위즈파크 재단장

KT가 새로운 AI 마스터 브랜드인 'K 인텔리전스(K intelligence)'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K 인텔리전스는 KT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K'에 '지능'이라는 뜻의 'intelligence'를 결합한 신규 브랜드 명이다.

앞으로 KT는 K 인텔리전스로 대한민국 AI 산업 발전과 고객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KT의 AI 상품과 서비스를 대표하겠다는 방침이다.

KT는 새로운 브랜드 출시에 맞춰 수원 KT위즈파크를 'AI 스타디움'으로



K intelligence 광고 메인 이미지. /KT

새롭게 단장했다.

AI 스타디움은 KT가 AI 솔루션 기업 '슈퍼VAI'와 함께 개발한 KT CCT V AI 영상분석을 활용해, 경기장 내 혼잡도를 관중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며 안전한 관람을 유도한다. /김서현 기자

# 공매도 부활에 변동성 '경고등'... 유동성 기대 vs 충격 우려

**증시, 코스피 질주 속 변수 긴장**  
대차 급증에 단기 조정 경계감 ↑  
외국인 유입 기대에 전망 엇갈려  
시장 충격 가능성 투자심리 '흔들'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증시 변동성 이미지.

코스피가 2600선을 뚫으며 꽃샘 추위 극복하고 맹렬한 질주를 하는 가운데 이달 31일 전면 재개를 앞둔 '공매도 부활'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공매도 재개로 인한 단기 조정으로 코스피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반대'하는 측과 글로벌 투자자본의 유입으로 한국 증시가 한단계 성숙하는 '벨류업' 주장이 엇갈리면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추후 주가가 떨어지면 내린 가격에 주식을 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에 거품이 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또 공매도가 사실상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공매도, '유동성 확대' vs '변동성 우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매도가 재개되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이 많다.

NH투자증권은 '공매도 재개의 시장 영향 점검'이란 보고서를 통해 "공매도 재개에 따른 주식 거래 활성화 효과는 유가증권시장보다 코스닥시장에서 더 부각될 것"이라며 "과거 사례를 볼 때 공매도 재개로 확대되는 유동성은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공매도 재개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일단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상 외국계 펀드는 롱·쇼트 전략을 함께 사용하는데, 쇼트가 가능해지면 동시에 매수 포지션도 늘어나 유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배철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수급은 저점을 통과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 비중을 낮추기보다 확대할 여력이 크다"고 말했다.

배철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가 유동성을 확대해 오히려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외국인의 국내 주식 및 선물 수급이 저점을 지나고 있으며, 한국 주식 비중을 확대할 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자체가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결정짓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제한적이었던 만

큼, 공매도를 다시 허용한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다. 오히려 공매도가 본질 가치에 맞춰 주가를 조정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며, 반대로 공매도 허용이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한 기대"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 가능성이 언급되지만, 그로 인해 주가가 의미 있게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가는 기업의 수익성과 펀더멘탈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며, 공매도 재개 여부는 증시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보다는 투자자 심리에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동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가 유동성을 높이고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을 키우는 등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지수 하락과 업종 간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세 차례 공매도 재개 시 코스닥 시장에서 1개월간 충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번 공매도 재개는 한 달가량 시장 변동

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고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과거 공매도 잔고 많았던 종목 유의해야  
시장은 벌써부터 들쭉인다. 올해 1월 2일 47조3358억원이던 대차잔고는 21일 62조383억원으로 불었다. 증권가에서는 대차거래 잔고가 늘어나거나 고평가되고, 과거에 공매도가 많이 이뤄졌던 종목을 중심으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의 대기자금으로 볼 수 있는 대차잔고가 늘어나는 업종이 있다"며 "화학, 철강, 조선, 배터리 등"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차가 늘었다고 반드시 공매도가 물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대부분 공매도 금지 전에 공매도가 활발했기에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과거 공매도가 많이 이뤄졌던 종목도 다시 공매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숏 포지션(매도전략)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았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직전 거래일인 2023년 11월 3일 기준 코스피 공매도잔고 비중 상위 종목에는 이차전지, 화학, 관광 관련 종목이 대거 포진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홈플러스 사태에 비우량 CP·전단채 발행 '뚝' "세계인의 식탁에 K-시드 심겠다"

A3 이하 발행 58.95% 급감  
증권가, 차환도 선별적 대응  
투자심리 위축에 고객문의 ↓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이후 비우량 등급의 기업어음(CP)과 단기채권 발행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크레딧시장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발행된 CP와 전자단기사채 규모는 81조109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8조7752억원 대비 약 38.00% 증가했다.

그러나 신용등급 'A3' 이하 비우량 등급 채권의 사정은 다르다.

이달 4~20일 A3 등급 이하 CP와 전

단채는 2296억원 발행돼 5593억원이 발행됐던 전년 동기 대비 58.95% 급감했다.

전체적인 CP와 전단채 발행은 전년 대비 늘었지만, 비우량 등급의 발행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지난 1월과 2월 A3 등급 이하 발행액이 각각 1조628억원, 1조391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이달 들어 발행 규모는 크게 축소됐다.

이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증권사가 비우량 등급의 CP와 전단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 증권사의 채권 담당자는 "현재 A3 등급은 신규 발행 검토를 하고 있지 않으며, 차환 발행에 대해서도 매우 보수

적으로 접근하면서 대부분 상환 처리했다"며 "선별적으로 차환하고 있어 발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A3 등급 기업에 대한 불신이 커져 고객 문의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며 "상품을 취급하는 리테일 채널 또한 판매를 거의 중단한 상태이고, 추후 상품 판매에 대한 검토를 다시 시작하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상품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3 등급 시장 자체가 A1~A2 등급 기업에 비해 발행량이 많지 않아 단기자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동안 시장 조달이 가능했던 A3 등급 기업들은 다른 조달 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코스닥 CEO 인터뷰

류경오 아시아종묘 대표

"국산 종자 우수성 널리 알릴 것" 강조  
3년 내 해외매출 비중 50% 이상 목표  
기능성 종자로 새 성장 동력 마련도



류경오 아시아종묘 대표.

"전 세계 종자 시장에 K-시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종자회사로 자리 잡겠다."

국내 종자산업의 선두주자인 아시아종묘가 세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류경오 아시아종묘 대표는 지난 1992년 '아시아나 종묘'로 출발해 2004년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종자 개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류 대표는 "세계인의 먹거리를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라는 좌우명을 바탕으로 종자 국산화와 수출에 집중하며 국내 종자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국산 종자, 세계로 뻗어간다

아시아종묘는 창업 초기부터 특수채소와 쌈채소의 국산화에 주력했다. 상추, 치커리, 청경채 등에서 시작해 양배추, 무, 브로콜리, 콜라비 등 배추과 채소와 수박, 멜론, 참외 같은 열매채소 종자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현재는 양배추, 수박, 토마토, 고추, 오이 등 다양한 종자를 자체 개발·생산해 국내외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기능성 작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당노병 환자에게 이로운 혈당강화 성분 AGI가 풍부한 '미인꽃고추', 향산화 물질 안토시아닌이 다량 함

유된 자색 잎 청경채 등은 아시아종묘의 대표적인 기능성 품종이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아시아종묘는 IR52 장영실상 대통령상, 전미주품종상(AAS),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R&D에 집중... 글로벌 경쟁력 강화

아시아종묘의 경쟁력은 연구개발(R&D)에서 나온다. 200명에 달하는 임직원 중 절반 가까이가 연구개발 인력이다. 류 대표는 "국내 종자 산업은 유통 중심으로 자원이 쏠려 있어 자체 연구개발에 어려움이 많다"며 "아시아종묘는 R&D에 집중해 새로운 품종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와 병충해 같은 시장 위험 요소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류 대표는 "기후 변화로 농작물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병성과 다수확 품종 개발이 중요하다"며 "스마트팜 농가에 적합한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환 기자

## 수주잔고 '경풍'... 실적·주가 동반 질주



관심종목

### 엠앤씨솔루션

엠앤씨솔루션이 해외 수출 비중 확대에 힘입어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며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방산 수출 확대와 수주잔고 증가가 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며,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엠앤씨솔루션의 주가는 지난 21일 기준 전 거래일 대비 5.

59% 오른 8만5000원에 마감했다. 이는 전달 대비 약 21.6% 상승한 수치다. 방산 수출 확대와 수주잔고 증가가 주가 상승의 배경으로 꼽힌다.

엠앤씨솔루션의 지난해 총 수주잔고는 9570억원으로 전년 대비 68.1% 증가했다. 2022년 수주잔고가 3451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업계에서는 폴란드형 K9 자주포와 K2 전자, 중동형 천궁2가 2028년부터 2029년까지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에 루마니아 K9 자

주포, 호주 레드백 장갑차 등 추가 수출 계약까지 성사될 경우 매출 성장과 마진 개선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엠앤씨솔루션은 지상·유도·해상·항공·레이저·우주 등 방산 분야에서 유압식 및 전기식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지상화력 분야(K9, K2, 레드백 등) 유압 및 현수장치 ▲유도 분야(천무, 천궁) 발사대용 유압시스템 ▲항공기(KF-21, KUH) 연료 조절 장치 및 유압펌프 등이 있다. 엠앤씨솔루션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2828억원으로 전년 대비 56.3%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345억원으로 60.5%, 순이익은 270억원으로 71.4% 늘었다. /김대환 기자 kdh@

# 노사발전재단, 기관 간 전략 연계 관광업 중장년 취업률 56% 성과

중구청·관광공사 등과 업무협약  
구직자 발굴·맞춤형 인력양성 등  
중장년 일자리 창출·통합서비스  
올해 종료구청도 협약기관 참여

노사발전재단이 협약기관 간 전략적  
연계를 통해 관광산업 내 중장년 고용  
창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노사발전재단에 따르면, 재단  
은 지난해 관광업종 중장년 일자리 창  
출 등을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  
구청, 한국관광공사, 서울시관광협회  
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발전재단은 협약을 통해 관광업  
종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통합서비스 체  
계를 구축해 구직자 발굴, 기업 구인수  
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과 채용 행  
사 등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주요 협업 사례를 보면, 노사발전재  
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와 중구청이  
'호텔 종사자 양성과정' 및 '구인구직  
만남의날'을 공동운영, 맞춤형인재양



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4050 중장년 취업박람회'가 참가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시스

성 교육을 통해 중장년 직무 전환을 지  
원하고, 다양한 구인처를 발굴해 일자  
리 지원 기회를 확대했다.

또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는 기업지  
원서비스 및 채용 연계사업을 통해 일  
자리수요에 참여 관광기업 대상 채  
용 연계와 기업지원 연계를, 한국관광  
공사와는 관광기업 대상 사업 홍보 및  
기업 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관광기업  
대상 인지도를 높였다.

서울시관광협회는 회원사대상 구인  
수요 조사를 진행해 산업 내 실질적인  
고용 수요를 분석, 중장년층 채용 확대  
를 위한 전략적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각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관광업계 고용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구인 인원 194  
명을 23개 기업에 연결해 취업률  
56.3%의 성과를 내는 등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한 관광산업 내 중장년 고용  
창출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일자리 창  
출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올  
해는 종료구청도 협약기관으로 참여해  
그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용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관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관광업계의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구축하  
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전KDN이 지난 20일 나주 본사 교육관에서 '2025 한전KDN 미래인재발굴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전KDN

## 한전KDN 미래인재발굴단 출범식 “직무능력 중심, 공정채용 강화”

한전KDN이 사람·직무 중심 인사관  
리로의 변화를 선도한다. 이를 통해 직  
무능력 중심 공정 채용을 강화한다.

한전KDN은 지난 20일 나주 본사 교  
육관에서 '2025년 한전KDN 미래인재  
발굴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  
혔다.

'한전KDN 미래인재발굴단'은 정부  
의 직무 중심 인사·조직관리 방향에 발  
맞춰 직무기술서 고도화, 채용설명회  
전문 인력 운영 등 제도 개선에 나선  
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  
으로 상세한 채용 가이드를 제공함으  
로써 지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맞  
춤형 채용을 추진하게 된다.

한전KDN 미래인재발굴단은 4개 본  
부별 4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무별 직  
원 집중 인터뷰를 통해 전력산업에 필

요한 직군별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이  
를 바탕으로 직무기술서 고도화에 기  
여할 예정이다.

한전KDN은 이를 통해 채용 과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  
록 지원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프  
로세스 확보와 실력과 역량 중심의 인  
재를 확보할 방침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미래인재 확보  
를 위한 체계적인 채용 혁신은 지속 가  
능한 경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미  
래인재발굴단을 통해 직무 중심의 공  
정 채용을 더욱 강화하고 지원자들이  
직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  
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구제역·AI·돼지열병 확산... 축산농가 비상

세종·충청 고병원성 AI 4건 잇달아  
경기 양주 ASF, 전남 구제역 확산

이달 들어 전국 축산농가에 주요 가  
축전염병의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  
다. 전남 지역에서 구제역이 확산한 데  
이어 최근 세종·충청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경기 양주에  
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검출  
됐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세종의 한 산란계농장(8만9000마  
리 사육)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의  
심사례가 양성으로 판명됐다. 세종·충  
청 지역에서는 이달에만 5건(세종 2,  
충남 2, 충북 1)의 고병원성 AI가 발생  
했다. 특히, 이 5건 중 이달 19~22일 불  
과 나흘간 4건의 양성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10월29일부터 3월22일까지  
이번 동절기 전국 고병원성 AI 발생 건  
수는 총 41건으로 집계됐다. 인천 1, 세  
종 3, 경기 4, 강원 1, 충북 7, 충남 5, 전  
북 11, 전남 5, 경북 2, 경남 2건이다.



국내의 한 야산에서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소독 작업이 실시되고 있다. /뉴시스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세종과 충남  
천안, 충북 청주에 방역팀을 파견해 농  
장출입통제, 역학조사, 살처분 등을 실  
시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지역인 대전,  
충남 공주, 계룡 등지의 방역상황도 점  
검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추가 확산 방  
지 및 감염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  
농장의 10km 이내 사육시설 83개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지난 16일에는 경기 양주의 한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  
인됐다. 발생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  
접 경기 양주의 사례와 관련해 철저한  
방역조치와 역학조사를 지시하기도 했  
다. 양주 지역 내 돼지열병 발생은 1월  
(2건)에 이어 3건을 늘렸다.

구제역의 경우, 전남 한우농가서 확  
산 중이다. 지난 14일 이후 전남 영암  
과 무안에서 구제역 감염 사례가 총 13  
건 확인됐다. 영암의 한 한우농가에서  
첫 검출이 확인된 이후 인근 농장에서  
11건이 추가됐다. 무안에서도 1건이 보  
고됐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  
은 지난 2023년 5월 이후 1년 10개월 만  
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4일부터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시작해 영암·무안 축산농  
가에서 기르는 소, 염소, 돼지 등에 대  
한 접종을 마쳤다.

## 환경부, 메콩강 5개국과 '물 문제' 논의

'제3차 한-메콩 국제 물포럼'  
대전컨벤션센터서 이틀간 열려

환경부가 24일부터 이틀간 대전 유  
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한-  
메콩 국제 물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  
서는 메콩강 유역의 물 문제 해결을 위  
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메콩 국제 물포럼은 기후변화 및  
급격한 개발로 심화된 가뭄, 홍수 및 수  
질악화 등 물 문제를 겪고 있는 메콩강  
지역의 5개국(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이 대상이다. 우리나라  
의 물 분야 영향력을 확대하고 협력사  
업 발굴을 위해 2022년부터 개최된 고  
위급 토론회다.

행사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 ▲  
한화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메콩지역 5개국(라오스, 미안  
마,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정부 대표  
와 대사를 비롯해 메콩강위원회(MR

C), 메콩연구소(MI), 아시아개발은행  
(ADB), 호주물파트너십(AWP) 등 메  
콩지역 개발협력기관 및 국내 물기업  
등 총 200여 명이 참여한다.

행사 주제는 '디지털 물관리를 통한  
메콩지역 기후변화 탄력성 제고'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물  
관리 필요성과 함께 메콩지역의 물문  
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을 논의한다.

첫날인 24일에는 개회식, 고위급 대  
화, 국제개발협력파트너 세션, 신규사  
업 원탁회의(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이 열리고, 25일에는 국제협력기금  
설명회 및 메콩협력기금(MKCF) 핵심  
사업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병화 차관  
은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측, 스마트 물관리 등 우리나라  
의 디지털 기술이 이 지역 문제에 기여  
할 수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코트라, 채용博 앞두고 참가기업 접수

국내 최대규모 글로벌 채용박람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오는 5월 국내 최대 글로벌 채용박람회  
를 개최를 앞두고 행사 참가기업 홍보  
에 본격 나선다.

코트라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코  
트라 본사에서 '2025 글로벌 인재 서포  
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

다. 전국 대학생 20명으로 구성된 서포  
터즈는 앞으로 두 달간 '2025 글로벌 텔  
런트 페어'와 참가기업을 홍보한다. 특  
히 반도체, 배터리, IT, 코스메틱 등 다  
양한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을 취재하  
고, 이를 바탕으로 홍보 콘텐츠를 제작  
한다.

올해 채용박람회는 5월19일~20일까  
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산

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  
최하고 코트라는 주관하는 이 행사는  
국내 청년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해외  
기업 취업을 지원하며, 외국인 유학생  
에게 국내 취업 기회도 제공한다.

올해는 3M, 보잉 등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투자기업  
180개사, 아모레퍼시픽 등 외국인 유학  
생 채용 수요가 있는 국내기업 100개  
사, 해외 구인기업 50개사 등 총 330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 소부장 초격차 이끈 현장 주인공 찾아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산업 및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  
한 유공자 포상을 위한 '2025년 소재부  
품장비-뿌리산업 발전 유공 포상 계  
획'을 24일 공고하고, 내달 2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총포상규모는 은탑산업훈장을 비롯  
한 훈장 3점, 포장 2점, 대통령표창 6  
점, 국무총리표창 7점 등 정부포상 18

점과 산업부장관표창 55점 등 총 73점  
이다. 포상은 오는 10월 열리는  
'2025년 소부장뿌리기술대전 시상식'  
에서 수여할 예정이다.

나성화 산업공급정책관은 "세계  
최고 기술 확보 등 우수 성과 창출을 통  
해 우리 소부장·뿌리 산업의 위상을 높  
인 현장의 주인공을 적극 발굴하겠다"  
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교보문고 4주연속  
한국소설 베스트셀러  
TOP 10

원작 도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17개국 판권 계약 완료

밀리의서재  
밀리로드  
베스트 1위

# 뮤지컬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저마다의 고민으로 축축했던 마음이 뽕송뽕송해지는 곳  
여기는 빙글빙글 빨래방입니다



## 2024. 06. 01. OPENRUN 대학로 후암씨어터

원작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팩토리나인, 원작자: 김지윤)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김기석 | 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이창원 | 조명디자인 정필균  
음향디자인 안형록 | 영상디자인 김태윤 | 무대제작 (주)빛나 | 포스터 (주)그래피스타 | 사진 강상욱  
주최 (주)이엘엔터테인먼트 | 주관 (주)이엘엔터테인먼트/극단지우 | 공연문의 02-332-4902

#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

특별법 제정 위한 국회 토론회 지원 필요성 알리고 방안 논의  
패권 선점 위한 정부 지원 절실

대한민국 대표 배터리 도시인 포항시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포항시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포항시가 주관하고 지역 국회의원인 이상희 포항시남구 율령군 국회의원과 김정재 포항시북구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철규 국회 산자위위원장, 국민의 힘 김기현, 이달희 의원 등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 추진에 힘을 실었다.

또한 예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 기업과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대표 배터리 도시인 포항시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정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차전지PD가 글로벌 이차전지산업 동향과 국내 대응 방안을,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이사 배터리 소재 기업 현황 및 정책 지원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광주 SNE리서치 대표를 좌장으로 박준모 법무법

인 율촌 변호사, 박재정 산업부 배터리전기전자과장, 박규영 포스텍 배터리공학과 교수, 장인원 예코프로지사 글로벌자원실장, 한미향 포스코퓨처엠 커뮤니케이션실장 등이 참여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관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차전지가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의 과격적인 지원

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환경시설 투자와 전기료 상승으로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으로 이차전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포항시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 이차전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토론회가 이차전지 산업의 전방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별법을 토대로 전력비용 및 환경처리시설 지원, 생산보조금 등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dx@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순천시

#### 모범납세자 450명 선정

순천시는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기여한 개인 납세자 450명을 '순천시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순천시 모범납세자들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으며,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연간 3건 이상 정기분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개인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성실 납부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 서한문과 함께 2만 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이 지난 19일 우편으로 발송됐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 울산시

#### 제19회 울산 화학의날 기념식

울산시는 지난 21일 오후 롯데호텔 울산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이성통 시의회 의장, 산업부 관계자, 조영신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화학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울산 화학의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화학 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 등 화학 산업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울산의 주력 산업인 화학 산업의 인지도 향상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8@

### 경북도

####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경북도가 내륙 최초의 청소년 해양 교육시설인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을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은 173억원(국비 98억원, 지방비 75억원)이 투입돼 상주시 낙동면 낙동1길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대지면적 8684㎡, 연면적 3423㎡)로 건립됐다.

교육원 내에는 수영장(25m 4레인), 잠수풀(폭 5m, 길이 8m, 깊이 5m), 강당, 교육실, 의무실 등 체계적인 해양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시설이 갖춰졌고, 최대 100여 명의 숙박이 가능한 22실의 생활관도 조성됐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 외통위 의원, 'APEC 정상회의' 점검

### 외통위 소속 의원 13명 경주 방문 현장 중심 준비태세 집중 점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1일 경주를 방문해 '2025 AP 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방문에는 김석기 외통위위원장(국민의힘·경주시)을 비롯해 김영배 간사(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 김건 간사(국민의힘·비례대표) 등 외통위 소속 의원 13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 KTX를 이용해 경주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정상회의장으로 예정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찾아 APEC 준비지원단으로부터 회의 준비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이동협 경주시의장,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등도 함께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정상회의의 주요 일정과 함께 기반시설, 경제, 문화, 수송, 숙박, 의료 등 부문별 준비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낙영 경주시장의 안내로 APEC 정상회의가 열릴 하이크와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상황이 상세히 보고됐으며, 외통위원들은 이에 대해 열린 논의를 이어가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의원들은 HICO 내부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정상회의의 운영 계획과 동선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 정상회의의 참가자 및 관계자들이 이용할 숙박시설을 방문해 안전 대책과 편의시설 확보 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 여건을 확인하며, 현장 중심의 준비 태세를 집중 점검했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 부산시, 국제금융센터지수 24위 차지

### 역대 최고 점수 728점 기록

부산시가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 경쟁력을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7)에서 119개국 중 24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점수인 728점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최고 성적이며 2023년 3월 대비 13계단이나 상승한 결과로, 아시아에서는 9위에 해당한다.

부산시는 이런 괄목할 만한 성과가 '금융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추진 등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부산시의 노력과 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

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3000억원 규모의 '미래성장벤처펀드'를 조성해 부산 지역 벤처 펀드 투자 비율을 높였으며 올해 2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시대 벤처펀드'에도 선정돼 연내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지역 투자 생태계를 크게 개선했다.

또 앞으로 9년간 2조 3000억원 규모의 '부산 산업전환 녹색 펀드'를 조성해 기존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돕고, 기업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청송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에 성공했다.

## '전남 유니크베뉴' 6곳 신규 지정

### 인서리공원, 담빛예술창고 등 선정

전남 광양 인서리공원, 담양 담빛예술창고, 고흥 남포미술관 등 6곳이 전남 유니크베뉴(Unique Venue)로 새롭게 지정됐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마이스(MICE) 행사 적지로서의 전남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니크 베뉴 공모에 나서 모두 6곳이 신규 지정됐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지난

2023년 목포 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 여수 예술마루, 나주 3917마중, 구례 쌍산재 등 20곳(현재 17곳 운영 중)을 유니크베뉴로 지정해 마이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설 활용도를 높 이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규 유니크 베뉴는 담빛예술창고, 아쿠아플라넷 여수, 인서리공원, 남포미술관, 장성 경이궁한옥스테이 & 캠핑카라반, 구례 반야원 플라타너스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청송군, 특색있는 '관광거점도시' 조성

### 로컬리즘 관광 트렌드 발맞춰

청송군은 올해 다양한 관광 시책사업을 추진해 함께하는 문화관광, 풍요로운 관광거점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최근 관광 트렌드는 기존의 유명 관광지에서 벗어나,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 특색을 즐기는 '로컬리즘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청송군은 차별화된 자연경관과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특색 있는 정책을 추진, 새로운 관광 수요에 부합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해 '주산지 관광지 조성사업',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특히 호텔과 글램핑장을 갖춘 이색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더욱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를 견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송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에 성공한 청정 생태환경을 활용하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교육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한다. /청송(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 창원특례시

#### 국제교육도시연합 정례회의 참가

창원특례시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2025년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정례회의'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정례회의에는 13개국 84개 교육 도시 단체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시아 최초 IAEC 상임이사 도시이자 아시아-태평양 네트워크 의장 도시인 창원특례시는 이번 총회에서 상임 이사 도시 회의와 정례 회의에 참가해 지난해 활동 사항과 올해 아시아-태평양 네트워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금사과·금징어’ 막는다… 유통가, 할인·직매입 등 방어전

**이상기후 여파 농수산물값 급등  
CA저장·직매입·MOU 등 물량 확보  
못난이 양배추, 수산물 등 할인판매  
지자체 협업해 프리미엄 상품 개발**

농수산물 물가가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자 유통업계가 선제 대응에 나섰다. 저장 기술을 활용하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물량 확보에 총력을 벌이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농산물과 수산물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3.6%, 1.0% 상승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사과가 전월 대비 20.4%, 감귤은 14.7% 올랐다. 수산물 중에서는 물오징어가 20.5%, 기타 어류는 6.8% 상승했다.

이상 기후로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주요 어종의 대규모 폐사가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통계청의 어류양식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수산물 입식 마릿수는 전년 3억 1250만 마리에서 2억 6700만 마리로 급감했다. 양식 마릿수 역시 4억 7700만 마리에서 3억 3800만 마리로 크게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수온 및 질병 피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해로 주요 어종의 대규모 폐사가 발생하면서 입식 및 양식 마릿수에 변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생산 물량 감소에 농수산물 물가가 오르자, 유통업계는 다양한 판로를 통해 사전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롯데마트는 ‘금사과’ 현상에 대응해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신선품질혁신센터의 CA저장고를 가동했다. 지난해 수확기 이상 고온으로 저장 사과 품질이 저하되면서 버려지는 물량이 생기자, 저장 환경을 정밀하게

관리해 원물 손실을 줄여 물량 확보에 나선 것이다.

CA 저장기술은 온도와 습도, 공기 중 산소·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조절해 농산물의 보관 기간을 늘리는 기술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그린푸드 역시 제주도 농가와 협력해 제주산 저탄소 못난이 양배추 100톤을 매입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올해 수확된 제주 양배추는 기후 악화로 인해 모양이 고르지 않거나 흠집이 있는 ‘못난이’ 양배추 비중이 높지만, 맛과 품질

에는 문제가 없다”며 “이를 매입해 작황 악화로 생산량 감소와 값싼 중국산 양배추 수입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물 분야에서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물량 확보에 나선다. 대표적으로 이랜드김스클럽과 이마트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통해 고등어 등 주요 수산물 확보를 지원받아 해당 원물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 중이다.

이 외에도 이마트는 영덕군청과 ‘붉은대게 간편식 및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약 7톤가량의 붉은대게 원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프리미엄 상품으로 가공해 판매하고,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해 영덕 특산물인 대게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농수산물 등 식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뿐만 아니라 외식업계와 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식자재 물가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SPC삼립 신제품 관련 이미지. /SPC삼립

## SPC삼립 ‘크보빵’ 신제품 역대 최단 기록 사흘만에 100만 봉 돌파

‘크보빵(KBO빵)’이 출시 사흘만에 100만 봉 판매를 넘어섰다고 23일 SPC삼립이 밝혔다. 삼립이 출시한 신제품 중 역대 최단기간이다.

지난 20일 출시된 ‘크보빵’은 KBO 리그와 협업한 제품으로, 프로야구 9개 구단의 특징을 담아 제작됐다. 제품에는 구단대표 선수, 마스코트, 국가대표 선수 등 총 215종의 재부착 스티커가 무작위로 동봉됐다.

제품은 ▲타이거즈 호랑이 초코롤 ▲라이온즈 블루베리 페이스롤 ▲트윈스 쌍둥이 딸기샌드 ▲베어스 곰발바닥 꿀빵 ▲위즈 빅토리 초코바닐라 샌드 ▲랜더스 소금버터 우주선빵 ▲이글스 이글이글 핫툰우바 브레드 ▲다이너스 공룡알 흑임자 컵케익 ▲히어로즈 영웅필승 자색고구마빵 등 총 9종으로 구성됐다.

한편, SPC삼립은 이달 3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해피포인트 애플리케이션에서 ‘크보빵 드래프트 페스티벌 이벤트’를 진행한다. /안재선 기자

# 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 K패션 해외판로 본격화

**상해 ‘모드 상하이’ 쇼룸 운영  
브랜드별 개별 부스 정체성 강화  
통관·물류 등 실무 지원도 병행**

신세계백화점의 ‘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가 이달 25일부터 5일간 전 세계 패션·유통 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상해 패션위크’에 참여한다. ‘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는 신세계백화점의 K패션 해외 진출 지원 플랫폼이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신세계하이퍼그라운드는 이번 상해 패션위크의

공식 패션 수주전시회인 ‘모드 상하이’에 쇼룸을 연다.

이번 쇼룸은 성장성이 검증된 국내 브랜드와 함께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번 수주회를 통해 비건타이거, 스티 밀론, 비엘알, 토이프 엄선된 4개 브랜드 전폭 지원에 나선다.

신세계하이퍼그라운드는 신세계네트워킹을 활용한 사전 마케팅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단일 브랜드의 정체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도록 브랜드마다 개별 부스를 만들고, 행사 기간 중

해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초대장을 발송하고 소셜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홍보를 지원한다.

또,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면 통관, 물류 등 수출 전 과정에서 브랜드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박상민팩토리담당은 “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폭넓은 해외 진출을 돕고자 이번 상해 쇼룸을 열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K패션을 해외에 알릴 수



지난 2024년 진행한 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 밀라노 쇼룸 당시. /신세계백화점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 롯데백화점, 동북권 쇼핑 메카로 ‘우뚝’

**개점 이래 첫 전면 리뉴얼 돌입**

롯데백화점이 24일부터 노원점 전면 리뉴얼에 착수한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리뉴얼을 통해 개점 이후 처음으로 전관을 개편한다. 전체 영업면적의 80%에 달하는 약 1만 평 규모로, 점포 개점 이래 최대 규모다.

점포 외관 고급화, 내부 인테리어 개선, 층별 콘셉트 재정립, 지역 특화관 조성 등을 추진하며 ‘올 뉴(All New) 노원점’을 목표로 리뉴얼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재단장 공간에는 지하 1층, 1~2층, 8층 등 핵심 4개 층이 포함됐다.

우선 지하 1층에는 서울 동북권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식품관’을 선보인다. 식품관의 첫 번째 핵심 공간은 지역

최초 프리미엄 식료품점인 ‘레피세리’로, 미식 경험의 혁신을 목표로 차별화된 콘텐츠,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1층에는 300평 규모의 ‘뷰티 전문관’을 조성한다. 샤넬, 디올 등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서며, 글로벌 인기 니치 향수 브랜드도 입점한다. 2층은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한 ‘K패션 전문관’으로 탈바꿈한다. 마뎀김 등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들을 유치하고, 2030 세대의 선호도가 높은 인기 신발, 가방 브랜드들의 특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8층에는 ‘상권 최대 스포츠 메가숍’을 연다.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등 브랜드를 대형 규모로 구성하고, 프리미엄 상품 및 한정판 상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인다. /안재선 기자

## CJ제일제당, 글로벌 인재 확보 박차

**MIT·컬럼비아 MBA 재학생 봉사 방문**

CJ제일제당이 글로벌 인재의 견학·네트워크 프로그램인 ‘글로벌 탐티어 아카데미 파트너십’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CJ의 글로벌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동시에 현지 문화와 시장 이해도가 높은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과 20일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와 컬럼비아대 경영학석사(MBA) 과정 재학생 총 60명이 서울 중구에 위치한 CJ제일제당 본사를 방문했다.

견학 프로그램에는 이선호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이 참석해 ‘글로벌 CJ 비전’을 소개했으며, 글로벌

채용 담당자들은 사업 포트폴리오와 주요 브랜드, 제품 등을 안내했다.

행사 중간에는 바삭칩, 김스낵, 맛밤 등 CJ제일제당의 대표 간식을 제공해 ‘K-스낵’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임직원 휴게공간인 커넥트라운지를 비롯해 쿠킹 스튜디오 ‘CJ더키친’, CJ더마켓과 올리브영 매장, 카페테리아 식당 등을 둘러보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 외에도 CJ제일제당은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한 글로벌 인재 확보 및 네트워크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1월과 이달 초에도 코넬대, 브라이언트대, 텍사스대 MBA 과정 학생 110명이 한국을 방문했으며 올 상반기 중 와튼스쿨, 인시아드, 카네기 멜런대 등의 MBA 재학생들도 본사를 찾을 예정이다. /안재선 기자

## CU 도시락·브런치 15종 ‘넘버원 간편식’ 선택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넘버원 간편식 시리즈’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간편식을 선보인다. 이번 시리즈에는 도시락, 김밥, 삼각김밥을 비롯해 샌드위치, 파스타, 안주류 등 총 15종의 제품이 포함됐다.

CU에 따르면, 넘버원 간편식 시리즈의 대표 상품으로 ‘넘버원 김치돼지 찜 도시락’과 ‘간장돼지찜 도시락’이 마련됐다. 기존 편의점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찜 요리 도시락으로, 전용으로 제작한 찜 요리 전용 뚜껑을 덮고 전자레인지에 조리하면 촉촉하고 부드러운 고기 식감을 즐길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건강 콘셉트 제품도 출시한다. 대표적으로 키토 김밥을 편의점 간편식으로 구현한 ‘에그바’와 밥양을 줄이고 단백질 강화한 ‘에그삼각김밥’ 등이 있다.

브런치 메뉴도 만나볼 수 있다. ‘몬테크리스토 샌드위치’, ‘크루아상 샌드위치’ 2종을 비롯해, 호주 청정우유를 사용한 햄버거 등 제품이 준비됐다.

/안재선 기자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과학·예술 융합한 新패러다임 제시”

## 오가노이드 개발자 컨퍼런스

6월 13일~14일 코엑스 마곡서 열려  
퍼포먼스·전시 등 축제형식 진행  
바이오 혁신기술 저변 확대 도모  
연구자·산업 관계자 협력 기회 창출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는 6월13~14일 서울 마곡동 코엑스 마곡에서 ‘오가노이드 개발자 컨퍼런스(ODC25)’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2018년 시작된 ODC는 오가노이드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연구와 응용 가능성을 탐구하며, 과학과 예술, 기술과 문화를 융합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ODC25는 ‘다름에서 시작되는 창조적 에너지: 혁신의 교차점’이라는 주제로, 과학과 예술이 융합하여 만들어내는 혁신적 가능성을 조명한다. 오가노이드 연구의 최신 동향과 더불어,



인공지능, 정밀의료, 지속 가능한 바이오 기술 등의 발전 가능성을 조망할 예정이다.

특히 ODC25는 단순한 학술대회를 넘어 과학, 예술, 문화가 어우러지는 축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과학적 혁신과 예술적 감성이 결합된 퍼포먼스, 디자인 전시, 기술 기반 필름 페스티벌 등이 다채롭게 마련되며,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도 쉽게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컨퍼런스 첫날인 6월13일에는 ‘오가노이드 및 인공장기(Organoid & Arti-

ficial Organ)’ ‘오가노이드 지능(Organoid Intelligence)’, ‘정밀 의학 및 치료(Precision Medicine and Therapy)’, ‘지속 가능한 기술(Sustainable Technology)’ 등의 세션을 통해 오가노이드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의료 및 바이오 기술을 소개한다. 오가노이드 기반 인공장기,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명과학 연구, 맞춤형 치료제 개발 등 최신 연구 성과가 공유될 예정이며, 지속 가능한 기술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탐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둘째 날(6월 14일)에는 ‘푸드테크(F-

ood Technology)’, ‘AFI 글로벌 아이디어 챌린지(AFIGIC)’, ‘K-패션테크 놀로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융합 가능성을 다룬다. 특히 ‘AFI GIC’는 동물 실험 없는 과학을 주제로, 전세계 연구자와 혁신가들이 참여하는 창의적 아이디어 경연 대회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패션과 첨단 소재가 결합된 ‘K-Fashion Technology’, 대중과 함께하는 ‘삼프로TV 오가노이드 토크쇼’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번 ODC25에서는 ‘아티언스(Artience)’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된다. 아-

티언스는 2011년부터 대전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시작된 협력 프로젝트로, 과학자와 예술가가 함께 과학적 원리를 예술적 방식으로 표현하는 연구를 수행해왔다. ODC25에서는 오가노이드와 생명과학 기술이 예술적 언어로 재해석되는 과정이 공개되며, 과학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창의적 사고를 확장하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ODC 위원회는 이번 ODC25를 통해 오가노이드 기반 바이오 혁신 기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글로벌 연구자 및 산업 관계자들과의 협력 기회를 창출할 계획이다.

행사 관계자는 “ODC25는 기술과 예술, 과학과 인문이 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며, “오가노이드 기술이 단순한 연구를 넘어 미래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HLB, 간암신약 美 진출 세번째 도전 박차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  
FDA서 2차 서료보완요구서한 받아  
오는 5월 재신청... 7월 최종결과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전문회사 HLB 그룹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을 정조준해 세 번째 도전에 박차를 가한다.

23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HLB는 지난 20일(현지 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간암 1차 치료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해 2차 서료보완요구서한(CRL)을 받았다.

HLB는 지난 2024년 9월 20일 미국 FDA에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 품목허가 재승인 서류를 제출해 6개월 만에 2차 CRL을 수령한 상황이다.

2차 CRL은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으로 쓰이므로, 캄렐리주맙이 승인 요건을 갖출 때까지 미국 FDA는 결정을 보류한다는 내용이다.

캄렐리주맙은 중국 항서제약이 개발한 약물이다. 올해 1월 초 미국 FDA가 실시한 캄렐리주맙 화학·생산·품질(CMC) 실사에서 세 가지 경미한 사항을 지적받았다. 이번 미국 FDA 승인 획득 실패는 이 세 가지 사항을 완전히 보완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HLB 측은 “CRL에는 미비점이 무엇인지 적시되지 않아 중국 항서제약이 미국 FDA와 접촉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지속 밝혀 왔다.

이와 함께 HLB는 세 번째 승인 신청은 보다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을 지적받은 만큼, HLB는 향후 한 달 내에 항서제약이 지적 사항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HLB 측은 “오는 5월 재신청을 완료해 이르면 올해 7월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해당 재신청이 클래스 1로 분류되는 경우다. 미국 FDA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30일 내에 CMC 현장에 가서 보완내용을 직접 확인할 것인지에 따라 클래스 1, 클래스 2 등으로 구분한다. 클래스 1은 2개월, 클래스 2는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HLB는 앞서 2023년 미국 FDA에 처음 도전장을 냈지만, 2024년 5월 미국 FDA로부터 1차 CRL을 수령해 두 번째 도전을 준비했다. 이후 미국 FDA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HLB가 간암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한 두 개의 임상병원 중 두 곳을 추가로 해당 실사를 진행했고, ‘규정을 잘 준수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HLB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리보세라닙 CMC 보완실사도 완료했다.

이처럼 리보세라닙은 HLB 바이오 사업의 핵심 성장동력이다. 리보세라닙은 경구용 표적 항암제로,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신생혈관 형성을 유도하는 신호전달 과정에 선택적으로 작용한다.

리보세라닙은 원개발사는 미국 어드벤처연구소로, HLB 미국 자회 엘레바테라퓨틱스가 2007년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판권을 인수했다. 엘레바테라퓨틱스는 부광약품에게 한국 판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2018년 부광약품은 한국 판권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HLB생명과학에 양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HLB는 리보세라닙을 개발해 왔고,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간암뿐 아니라 위암, 대장암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병용요법에 주력했다. 또 단독 요법으로는 선양양성암 종 등을 적응증으로 한다.

진양곤 HLB그룹 회장은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쉽 없이 노력해 왔으나 실망스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하다”며 “좌절하지 않고 극복해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중국 항서제약과 빠르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mlee236@

## 셀트리온, 500억 규모 추가 자사주 매입

올해 총 8066억 자사주 소각 전망

셀트리온은 500억원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매입하는 자사주는 26만8385주이며, 자사주 취득은 3월 24일부터 장내매수를 통해 진행한다. 취득 후 전량 소각할 계획으로 셀트리온이 올해 소각하는 자사주 규모는 총 8066억원이 될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당사 자사주 총 보유 수량의 25%에 달하는 약 5533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추진해 올해 1월 완료했다. 또 이달 14일 약 2033억원 규모의 올해 취득한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셀트리온은 연내 추가 매입하는 자사주도 전량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주식 동시 배당도 실

시할 예정이다. 현금 배당은 보통주 1주당 750원으로 총 약 1538억원 규모를, 주식은 보통주 1주당 0.05주로 총 약 1025만주를 각각 배당한다.

이와 함께 이날 정기 주총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승인의 건’을 다룬다. 배당 수익 증가 효과가 높은 약 6200억원 규모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마련해 향후 주주 배당에 활용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 정책을 실천하겠다”며 “확고한 기업가치 구축과 주주환원 정책 실현을 통해 투자자들과 동반 성장하면서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약 436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과 약 7000억원 이상의 자사주 소각을 완료한 바 있다.

/이정하 기자

## 리가캠바이오, 英 익수다 경영권 확보

2500만달러 규모 투자 진행

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가 영국파트너사 익수다 테라퓨틱스에 25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는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지분 투자와 함께 익수다 기존 주요 투자자들의 지분을 매입하는 권리를 확보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투자 금액 중 1차에 해당하는 1500만 달러는 지난 2024년 4분기 투자를 완료했다. 추가 1000만달러 투자는 올해중에 이뤄진다. 투자 완료 후 리가캠바이오는 익수다 지분 26.6%를 보유하게 된다.

또 리가캠바이오는 익수다 지분을 3년 이내 투자원금에 매입 가능한 옵션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투자자간 계약

을 통해 최대 73.9%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무엇보다 리가캠바이오의 익수다가 구축한 항체·약물접합체(ADC) 파이프라인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갖는다.

리가캠바이오의 그동안 익수다에 ADC 후보물질인 LCB14, LCB73, ADC 플랫폼 LCB85 등 ADC 원천기술을 기술이전해 왔다.

그 결과, ‘LCB14’의 경우, 익수다를 통해 호주에서 글로벌 임상 1상에 착수했다. /이정하 기자

## 에이피알 ‘포먼트’, 시그니처 퍼퓸 재단장

쿠로미 한정판도 공개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은 퍼퓸&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포먼트에서 ‘시그니처 퍼퓸’ 제품군을 재단장했다. 또 ‘쿠로미 한정판’도 공개했다.

에이피알은 지난 2017년부터 국산 토종 향수 브랜드로 포먼트를 선보여 왔다. 이번 재단장을 통해 제품 디자인에 변화를 주고 브랜드만의 감성을 강조했다.

기존의 직사각형 형태의 용기를 원통형 용기로 바꿨다. 특히 향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용기나 향수 용액 색상을 각 제품마다 다르게 적용했다.

새 디자인은 코튼 허그, 코튼 베스, 코튼 메모리, 코튼 딜라잇부케 등 4종에 먼저 적용됐고 향후 다른 제품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이피알은 ‘시그니처 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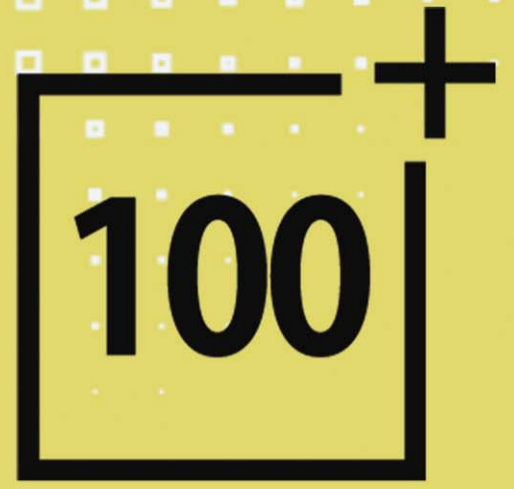


포먼트 ‘쿠로미 한정판’ 2종. /에이피알

퓸’ 대표 제품인 ‘코튼 허그’와 ‘코튼 메모리’ 2종은 ‘쿠로미 한정판’으로 내놓는다. 향수 뚜껑을 쿠로미 얼굴 모양으로 입체감 있게 특별 제작했다. 또 제품 라벨, 포장 상자 등에 귀여운 쿠로미의 모습을 담아 소장가치를 높인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기존 포먼트 향수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높아 출시 예정 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

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2025년 3월 25일(화) 오후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행사개요

- 행사명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 주 제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 일 시 2025년 3월 25일(화) 14:00~17:10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등 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당일 카드결제 가능
  -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 ~ 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 ~ 14:10	〈축사〉 김병환 금융위원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 ~ 14:50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글로벌 경기와 대한민국 경제 전망
강연	14:50 ~ 15:25	염승환 LS증권 이사 : 미국 주식 여전히 유효한가...증시 전망과 투자전략
	15:25 ~ 16:00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 자산가들의 절세노트 훑쳐보기
	16:00 ~ 16:35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은퇴 준비와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16:35~17:10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내집마련은 언제?...부동산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연사 소개



**김영익**  
-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옥스퍼드대학교 그린템플턴 컬리지 수료



**염승환**  
- LS증권 이사  
- 경제유튜브채널 <삼프로TV>  
- 저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77>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본부장  
- KBS1라디오 <은퇴설계, 오늘부터> 출연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



**호지영**  
-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 前 대신증권 WM추진부  
- 前 KPMG 삼정회계법인 컨설팅본부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 수석부사장  
- 저서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트렌드 수업>



**NH농협은행, 신림남자단기청소년센터 3억 지원**

NH농협은행은 여성가족부와 함께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시립 신림남자단기청소년센터에서 총 3억원 규모의 우리쌀 및 급식비 지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오른쪽 세번째)과 강태영 NH농협은행장(왼쪽 두번째)이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HMM, 청해부대 환송행사 참석... 후원금 전달**

HMM이 문무대왕함에 개최된 청해부대 환송행사에 참석해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타지에서 장기간 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쓰인다. 이광호 HMM 커뮤니케이션실장(왼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HMM



**롯데, '2025 행복나눔 동행콘서트' 성료**

롯데는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파트너사 임직원을 초청해 '2025 롯데 행복나눔 동행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롯데와 파트너사가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밝혀간다는 의미를 담아 함께 빛나는 순간'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가운데)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지주



**이노비즈협회-조달청, 中企 성장지원 업무협약**

이노비즈협회는 지난 21일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조달청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왼쪽 두번째)과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왼쪽 세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코웨이, 블루워터 지킴이 챌린지**

코웨이가 '세계 물의 날'(3월22일)을 맞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블루워터 지킴이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23일 코웨이에 따르면 블루워터 지킴이 챌린지는 코웨이 ESG 환경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일상 생활 속 가벼운 실천을 통해 깨끗한 물을 지켜나가는 취지로 기획한 캠페인이다. 코웨이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양치 컵 사용하기 ▲비누칠, 양치할 땀 수도꼭지 잠그기 ▲티블러, 에코백 꾸준히 사용하기 등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독려하며 깨끗한 물의 소중함을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베트남 'K-푸드' 수출 팔 걷어**

**베트남 현지 농업인 직접 소통 도둑두이 장관 면담... 협력 논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도둑두이 베트남 농업환경부장관과 면담하고, 농식품·동물의약품의 수출 확대 및 농업기술 교류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감귤·키위 등 한국 과일을 비롯해 동물용의약품, 열처리가금육 등 'K-푸드 및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상대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베트남 측은 사과·포도·소주 등의 K-푸드, 스마트팜을 포함한 한국 농업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 농업 협력 업무협약 등 양국 간의 지속적인 논의를 희망했다.

송 장관은 아울러 올해 우리나라



송미령(오른쪽 네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통해 설립된 베트남 현지 농산물 가공시설을 찾았다. /농식품부

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인선 8월)와 정상회의(경북 경주 10월)에 대한 지지와 참가를 요청했다.

베트남은 올해 8%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고속성장 국가이다. 우리 농식품과 농기자재에 대한 현지인들의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시장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기반해 농식품 교역 확대, 농업기술 이전, 스마트농업 기업 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다음 날인 22일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통해 설립된 농산물 가공시설에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베트남 농업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설은 현지 로이사마을

등에서 생산된 당근과 멜론을 저장·선별·가공해 베트남 각지로 유통하는 핵심 거점이다. 한국의 농산물 수출 후 관리 기술과 가공 기술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을 운영하는 현지 협동조합장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농산물 품질이 개선됐다. 이로 인해 판매량과 지역 농가 소득이 증가했다"며 "이에 많은 지역 농민들이 한국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베트남과 한국이 활발하게 교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송 장관은 "지난해 7월 베트남 농업부에서 한국을 방문해, 답방을 요청했는데 이에 응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베트남과 더욱 폭넓은 농업 협력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LG전자, 美 '칼리지 데이' 행사**

**대학생 초청... 사업·기술력 소개**

LG전자가 미국 명문 대학교들과 협업해 미래 고객이자 미래 인재인 대학생들과 접점을 확대한다.

LG전자 미국법인은 현지시간 21일 프린스턴대학교에서 한국어학수업을 듣는 대학생 50여명을 북미지역 본사로 초청해 'LG 칼리지 데이(College Day)'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인근 대학에서 한국어학 전공 대학생들을 초청해 사업과 기술력을 소개하고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사육에 마련된 쇼룸을 둘러보며 무선·투명 올레드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T, 이동형 무선 스크린 LG 스탠바이미 등에 담긴 혁신 기술을 체험했다.

올해 행사에서는 미국 가전시장을 선도하는 LG전자의 기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AI홈, 로봇 등 미래 기술에 대해서도 배울 기회를 제



지난 21일(현지시간) LG전자 북미법인 본사를 방문한 미국 프린스턴대 학생들이 LG전자의 올레드 플래서블 사이니지로 만들어진 체험존을 살펴보고 있다. /LG전자

공했다. 또 LG전자는 브랜드 슬로건인 '라이프스굿(Life's Good)'을 앞세워 진행 중인 더 나은 삶과 지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펼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도 소개했다.

LG전자는 올 상반기에는 프린스턴대학교 외에 예일대학교,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브라운대학교, 뉴욕대학교, 웨슬리언대학교 등 학생들을 위한 초청 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윤진식 무협 회장, 美 아웃리치 활동**

**남부지역 투자환경 조성 등 요청**

한국무역협회(KITA)가 미국 공화당의 핵심 지역인 남부 주요 주의 유력 인사들을 만나 한국 기업의 투자 성과와 경제적 기여를 강조하고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투자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19일부터 21일(금)까지 미국 텍사스, 테네시, 아칸소를 방문해 미국 주(州)정부를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윤 회장은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를 만나 반도체과학법 보조금 축소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어 스투어트 맥호터 테네시 경제공동체개발부 장관 및 휴 맥도날드 아칸소 상무장관과 연이어 면담을 가졌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에서(왼쪽부터) 윤진식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면담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이번 면담에는 OCI(텍사스), LG전자·LG화학·한국타이어(테네시)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동행해 각사의 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산업용수와 전력 인프라 확충 및 신속한 인허가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주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신세계디에프, 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

**'코리아그랜드세일' 우수 참여기업**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가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 시상식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

다. 행사는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 성과 공유 및 표창 ▲참여기업 간담회 ▲우수 참여기업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신세계면세점에 따르면,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적극 참여해 행사 성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행사 기간 동안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별한 쇼핑 경험을 제공한 점이 주요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한달선 前 한림대학교 총장 별세**

**향년 85세... 의료·교육현장 헌신**

한림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22일 한달선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사진)가 향년 85세로 별세했다고 23일 밝혔다.

한달선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평생을 대한민국 의료와 교육 현장에서 헌신했다.

1939년 평북 영변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4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66년에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석사를 마쳤다. 이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수의학 보건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부터는 한림대학교 의과



대학에서 한림의료원의 성장을 이끌었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연구소장,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초대 의무부총장, 한림대학교의료원장을 거쳐 제4대 한림대학교 총장에 취임하며 국내 의료 발전과 인재 양성에 역량을 쏟았다.

아울러 보건의료 정책 개선에도 힘썼다.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대한예방의학회장, 세계보건기구(WHO) 단기자문 등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큰 족적을 남겼다.

/이청하 기자 mlce236@

**부음**

▲신정애씨 별세, 전태성(전 문화일보 편집부 부장)·태한·혜경씨 모친상, 서미

숙·조정순씨 시모상, 박종수씨 장모상, 전두식·혜진·혜원·연실씨 조모상 = 충남서천군 상예원장재식장 봉황관, 발인 25일. 041-957-0004



# 서울시 토허제 지역 '집중점검' 이틀만에 이상거래 17건 적발

### 투기세력 교란행위 차단 집중점검 투기 우려지역, 거래동향 모니터링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 '엄정대응'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지난 22일까지 거래계약을 중개한 관내 중개사무소 136개소를 점검한 결과, 17건의 이상거래를 발견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내역의 부합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효력발생을 앞두고 주말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대상 지역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거래 가격 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을



서울의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토허제 확대 지정과 관련한 정부 자료집이 붙어 있다. /뉴스시스

집중적으로 파악했다.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할 경우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위해 자치구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운영했다.

시는 거래 과열 징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 효력 발생 전, 단계적 거래 집중 현상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 점검을 통해 시장의 이상 움직임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다.

한편, 서울시는 투기 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거래 동향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매도물량 감소에 따른 매매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교육청, 공공데이터 평가 '우수등급'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높은 성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기반 정책 활용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 실태 평가에서 90.75점,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94.00점을 획득하며 시도교육청 평균(88.3점, 76.1점)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이 중,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수립 및 이행률, 데이터 품질 관리,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분석·정책 활용 실적 등 20개 지표 중 14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공데이터 품질 향상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 분석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 건국대, 라오스에 축산기술센터 설립

현지 축산 인력 역량 강화 목표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는 지난 20일 라오스 시엥쿠양주에 축산기술센터를 개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축산기술센터 설립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인 '베트남 축산 고등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농업대학교 역량강화 사업(이하 베트남 국립농대 사업)'과 '라오스 중북부지역 농촌개발사업'의 삼각 기술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개소식에는 김수기 건국대 축산고등교육센터(KUVEC) 센터장(베

트남 국립농대 사업 책임자), 윤해진 한국개발전략연구소(KDS) 부원장(라오스 중북부 사업 책임자), 좌인 베트남 국립농업대학교(VNUA) 부학장 등이 참석해 센터의 개소를 축하했다.

신설된 축산기술센터는 한국개발전략연구소(KDS)가 수행 중인 KOICA의 '라오스 중북부 농촌개발사업(2021~2025년, 총 1250만 달러)'의 일환으로, 축산 연구와 실습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센터에는 행정동, 축사, 목초 저장시설, 축산 실험실, 인공수정 기자재, 목초 종자 저장시설, 농기계 보관시설 등이 조성됐다. /이현진 기자

# 의대생 돌아온다... 연고대 절반 복귀 신청

### 이번주까지 의대 복귀 마감 시한 의총협, 35개교 집단 휴학계 반려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해부터 휴학을 이어가던 의대생들이 돌아오고 있다. 대학들이 미복귀 학생들을 향해 학칙대로 제적, 유급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대부분의 의대 복귀 마감 시한은 이번주로, 의대 교육 파행이 끝나고 정상화할지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지난 21일이 복귀 등록 기한이었던 고려대와 경북대, 연세대 의대생들 절반가량이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세 대학은 전국 40개 의대

중 가장 먼저 등록을 마감했다.

연세대 의대는 6개 학년 재적생 700여명 중 300명 이상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등록을 마감한 고려대와 경북대의 의대도 연세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복학원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복귀 의대생 규모를 비공개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다.

나머지 30여개 의대 복귀 마감 시한도 이번주 순차적으로 돌아온다. 대학이 정한 복귀 마감 시한은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을 지나는 시점으로, 다수의 의대는 학칙에 따라 출석 일수의 4분의 1 이상 수업을 듣지 않으면 F학점으로 처리한다.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

을 경우 유급하게 된다.

1년 넘게 휴학을 이어온 학생들이 이번 학기 등록을 시작한 것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가 없었던 교육부 및 대학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대들도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는 의대생들은 학칙대로 조치할 계획이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지난 22일 전국 35개 의대에서 제출된 의대생 집단 휴학계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의대생 복귀가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조건으로 내세운 '의대생 전원 복귀'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현진 기자

# 고양시, 대만 포럼서 '순환도시' 비전 발표

이동환 시장, 'CityCOP' 포럼 참석

고양시는 지난 21일 대만 가오슝에서 열린 '2025 가오슝 스마트시티 서밋'의 CityCOP 포럼에 참석해 '자원의 재고찰: 순환도시를 위한 길'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CityCOP'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의 주요의제를 도시 차원에서 논의하는 고위급 국제회의로, 도시 대표단과 국제기구,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권위 있는 행사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위급 세션 연설을 통해 고양시의 자원순환 정책과 디지털 기술 접목 사례를 소개하며 "자원은 더 이상 무한하지 않다. 생산-사용-폐기라는 선형적 구조에서 벗어나 순환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 및 자원순환가게 운영 등 고양시의 실제 사례를 통해 순환도시 전략을 설명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신림6구역, 990세대 '숲세권' 주거단지

### 신림동 419일대, 신동기획 확정 최고 28층, 신흥 주거단지 변모

삼성산 자락의 노후 저층 주거지가 최고 28층, 990여 세대의 자연으로 열린 숲세권, 초포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관악구 신림동 419 일대 '신림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삼성산 자락에 위치하고 신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접하고 있어 자연환경과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바로 옆 신림5구역을 비롯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등 주변 지역에서 다수의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반면, 대상지 내 대부분이 노후주택이며, 경사지형에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아 안전사고 위험이 따르는 등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뤄 수차례 논의 및 계획 조정 과정과 간담회·설명회 등 주민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착수 7개월 만에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은 용도지역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사업 실현성을 확보했다. 또한, 26m 이상의 경사지형을 고려해 지형에 순응하는 대지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단차를 활용한 주차장, 상가, 커뮤니티시설 배치로 토지 효율성을 높였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30 | 해질 / 18:47

3월 24일(월) 음력 : 2월 25일

수도권 날씨 11 ~ 1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7/19, 동두천 9/19, 가평 6/19, 파주 7/17, 서울 11/19, 양평 9/20, 인천 8/14, 수원 9/18, 용인 9/18, 평택 9/21, 백령도 7/1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내달 2일 ‘더 표적화된’ 관세 발표할 예정”  
▲방중 트럼프 측근 정치인 “미중 정상회담 마련 위한 첫 단계” /사진 뉴스시스

▲주 불가리아 북한 대사, 1년 만에 부임...활동 시작  
▲‘美 서부 여행’ 한국인 여성 관광객 3명 실종 상태

▲프랑스 정부, 레바논 남부의 이군 폭격 등 전황 악화에 “우려”  
▲러, 드론 12대로 자포리자 공격...트럼프發 협상 무색



유통가  
할인·직매입 등  
농수산물값 방어전  
너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과학·예술 융합한  
新패러다임 제시

Life

ORGANOID DEVELOPER CONFERENCE  
Science, Art & Culture  
Jok, Seoul, Korea  
L2

# “선택권 늘린 복수거래소… 자본시장 틀 바꾸는 ‘시작점’”

##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

“투자자들이 자신이 여유로운 시간에 투자정보를 살펴보고 거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단순히 ‘제2의 거래소’가 아닙니다. 자본시장의 틀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인터뷰 내내 ‘투자자 중심의 혁신’을 강조했다.

이달 4일,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국내 주식거래 시간이 12시간으로 확대되고, 수수료는 낮아졌다. 24일부터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전 종목 거래가 가능해지고, 31일부터는 사실상 시장 전체로 문이 열린다. 국내 주식 시장에 70년 만에 등장한 복수 거래소 체제, 그 실험의 한가운데에 넥스트레이드가 있다.

〈메트로경제〉는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에서 김 대표를 만나, 출범 이후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대담을 진행했다.

#### 1단계 종목서 일평균 155억 거래

-1단계 운영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나.

“넥스트레이드는 1단계에 해당하는 10종목 거래를 지난 4일부터 9영업일간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의 일평균 거래량은 약 55만 주, 거래대금은 155억원에 달했고, KRX 정규시장 대비 약 26%의 거래가 넥스트레이드를 통해 체결됐다. 참여 계좌 수는 누적 34만8000개를 넘겼다. 거래 시간대가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으로 확장되어 호응을 얻었고 수수료 인하 효과 등으로 인해 초기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본다. 프리마켓이 가장 활발했고, 야간 거래 참여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 투자 수요가 본격적으로 유입됐다고 보는가.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 거래 시간이 다른 국가에 비해 짧았는데,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억눌렸던 투자 수요가 표출되기 시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넥스트레이드에서 본지와 인터뷰 갖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지난 4일, 70년 만에 복수거래소 등장 거래시간 12시간 확대, 수수료 인하 투자수요 유입… 초기반응 ‘긍정적’

31일부터 800개 전 종목으로 문 열어 3년 내 전체 시장 점유율 10% 목표 거래소 안착 위해 유연한 제도 필요

작한 셈이다. 관련 데이터를 공유한다면, 프리마켓(8:00~8:50)과 애프터마켓(15:40~20:00)에서 각각 1만8000명, 1만7000명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직장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

-출범 초기 전산 이슈가 있었다. 이후 어떤 대응을 취했나.

“초기 적응기를 거치며 몇 차례 전산 오류가 있었다. 일부 증권사의 HTS·MTS에서 체결 지연이나 시세 조회 오류, 증권거

래세 산정 오류 등이 발생했지만, 이는 운영상의 미숙에 따른 시행착오였고, 시스템 차원의 문제는 아니었다. 시스템과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했고, 전산 이상 발생 시 부서별·인력별로 확인하는 복수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 시스템 안정성이 강화됐다고 본다.”

- 지난 18일 ‘중간가 호가’ 관련 이슈에 대한 입장은.

“경쟁은 시장에 활력을 주지만,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준비 부족은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넥스트레이드를 지연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일부 시선은 다소 아쉽게 느껴진다. ‘중간가 호가’는 넥스트레이드와 거래소가 모두 도입한 제도지만, 지난 18일 거래소의 전 종목 거래 지연은 거래소 시스템 안에서 중간가와 자전거래 방지 기능이 충돌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본다. 넥스트레이드는 이 기능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우리

가 잘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주니 이런 오해도 일어나는 것 아니겠나.”

#### 3단계 확장, ETF 상장도 가시화

-3단계 확장 계획은 어떻게 되나.

“24일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대형주와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등 주요 코스닥 종목까지 거래 대상에 포함되면서, 거래 가능 종목은 350개로 확대된다. 31일부터는 800개 전 종목으로 문을 열며 사실상 본격적인 시장 개장에 들어가는 셈이다.”

- 넥스트레이드의 시장 목표 점유율과 거래 확장 계획은?

“3년 내 점유율 10% 달성이라는 목표는 무리한 수치가 아니다. 일본, 호주 같은 나라는 ATS가 점유율 10%를 넘기는데 1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첫 달부터 가능성을 보여줬고, 시장과 투자자 모두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아울러 넥스트레이드는 연내 ETF·ETN 거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상반기 내 마무리되면 연내 ETF 시장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관련 LP 도입과 전산 시스템 구축을 병행하면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파생상품, 채권, 토큰증권(ST) 등으로 거래자산을 확대해서 자본시장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 넥스트레이드가 지향하는 모습은?

“이제는 선택의 문제이자, 누가 더 편리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의 문제다. 넥스트레이드는 투자자들이 쫓기듯 거래하지 않고, 여유롭게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지향한다.”

#### 규제·제도 개선, 정부도 ‘열린 태도’ 필요

- 복수 거래소가 안착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나.

“복수 거래소가 일회성 이벤트처럼 되지 않으려면, 정부와 당국의 열린 자세가 꼭 필요하다. 점유율 규제에 대해서는 넥스트레이드는 지금 점유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전체 거래량의 15%, 단일 종목 거래 비중이 30%를 넘으면 해당 거래가 중단되는데, 이는 시장 안정성과 경쟁 촉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라 본다. 규제 자체는 수용하지만, 제도적 해석과 운영에 있어 정부도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

- 자본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은.

“출범 이후 프리·애프터마켓에 투자자들이 활발히 참여했다. 결국, 기존 시장이 채우지 못한 수요를 우리가 흡수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넥스트레이드는 앞으로 자본시장에 비어 있는 영역을 채우는 플랫폼의 역할을 충실히 할 예정이며,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자본시장의 혁신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담=김문호 부국장 kmh@metroseoul.co.kr

/정리=허정윤기자 zellkova@



①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넥스트레이드 개장식에서 내빈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 김병환 금융위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 윤창현 코스콤 대표이사. ②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가 넥스트레이드 개장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넥스트레이드 개장식



▲프로야구 역대 최초 개막 2연전 매진…2년 연속 1000만 관중 기대  
▲KIA 김도영, 병원 3곳서 햄스트링 손상 진단…2주 뒤 재검진 /사진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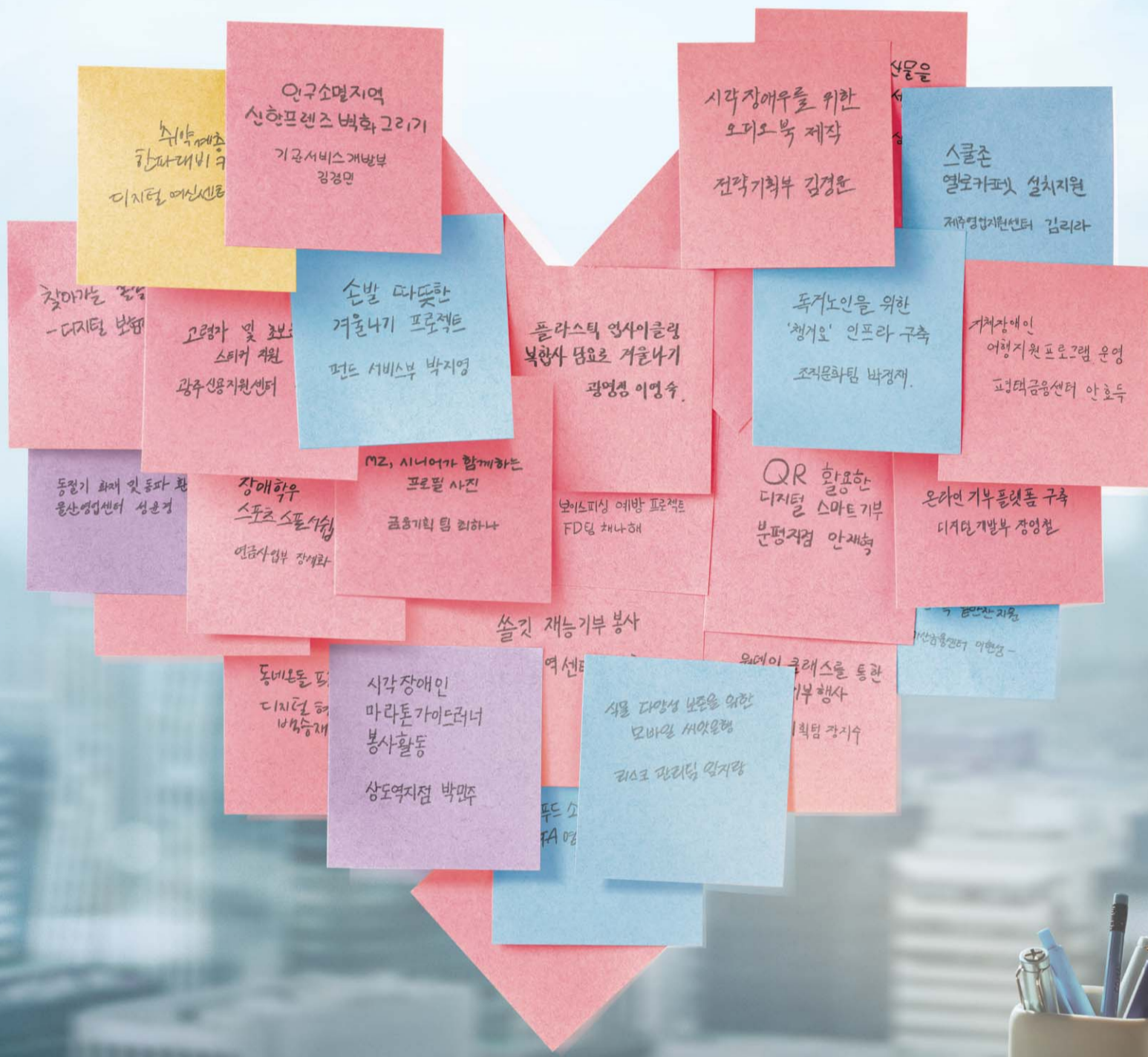
▲손준호 ‘승부조작’ 中 판결문 공개 논란…‘살살 뛰자 동의’  
▲‘월드컵 챔피언’ 아르헨티나, 메시 없이도 강했다…우루과이 격파

▲‘유망주’ 윤도영, EPL 브라이턴 이적…올여름 합류 후 임대 계획  
▲안병훈, PGA 발스파 챔피언십 3R 공동 11위…선두와 3타차

# 넌치는 아이디어로 세상을 따뜻하게

따뜻한 세상을 위해 발걸음을 보탭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2025년에도 함께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동행



### [신한 솔선수범 릴레이]

신한금융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은 사회공헌 사업의 아이디어 제안과 선정, 기부와 봉사활동까지 공헌 활동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